

우리문화



특집 | 이 가을에 다시 만나는 우리의 옛 책 20

문화논쟁 | 日·中의 역사왜곡과 위기의 국사교육

웰빙도 토종으로 | “꼭꼭 숨어라 송이버섯꾼 보인다”

2004 - 9.10

VOL. 172

전국문화원연합회



이 가을에

세상은
메마르지만
나는
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방문화원장 4명 문화훈장 서훈

10월 20일 정동극장에서 열린 문화의날 행사에서 정석진 평창문화원장(옥관), 윤수옥 장흥문화원장·최용문 속초문화원장·신정교 금산문화원장(화관)이 각각 문화 훈장을 받았다. (관련기사 68면)



정석진 평창문화원장



윤수옥 장흥문화원장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신정교 금산문화원장

추사 김정희 자료전 개최

‘추사 김정희 자료전’을 테마로 한 제7회 과천향토사료전이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과천시민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과천문화원이 주최하고 과천향토사연구회, 추사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문집, 단행본, 논문, 잡지, 도록, 팸플렛, 인보, 중국본, 탁본, 기타 현판 사진등이 전시됐다.



여야의원, 한글날 국경일 지정 노력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9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우리당 김덕규 김원웅, 한나라당 남경필 박진, 민주노동당 단병호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한글날은 3.1절, 제헌절 등 주요 공휴일 못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17대 국회에선 반드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 등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식 모임을 발족하고 여론조성과 입법추진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도봉산서원마을 축제 개최

도봉산서원마을축제가 지난 10월 23일 도봉산입구 도봉서원에서 개최됐다. 도봉문화원이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는 도봉산입구 서원마을 앞에서 마을안녕고사를 시작으로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급제자가 삼일 유가를 돌며 도봉서원에 전배하러 가는 모습등을 재현했다. 도봉문화원은 이번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봉산서원마을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축제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봉문화원은 도봉의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 얼굴

- 김용호 해남문화원장
 - 고두영 장수문화원장
 - 박수호 군위문화원장
 - 이호균 남해문화원장
 - 황연인 강원 고성문화원장
 - 이정박 인천 남동문화원장
 - 김종우 의성문화원장
- (관련기사 69면)

고암 이응노 탄생 백주년 기념전

국립현대미술관은 고암의 전체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다시 고암을 생각한다 : 고암 이응노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11월 3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 덕수궁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정치·사회적 상황이 민감하게 교차되는 현대사 속에서 예술적 재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응노 화백(1904~89)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4개의 시기로 나눠져 있어 작가의 그림 세계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ntents

September · October 2004 _ Vol 172

특집

이 가을에 다시 만나는 우리의 옛 책 20



04

인터뷰

“대중 스스로
우리말을
가꾸어 나가야” 17



34

전통문화를 찾아서



노리개 · 비녀 · 족두리 · 명기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래요 42

엘빙도 토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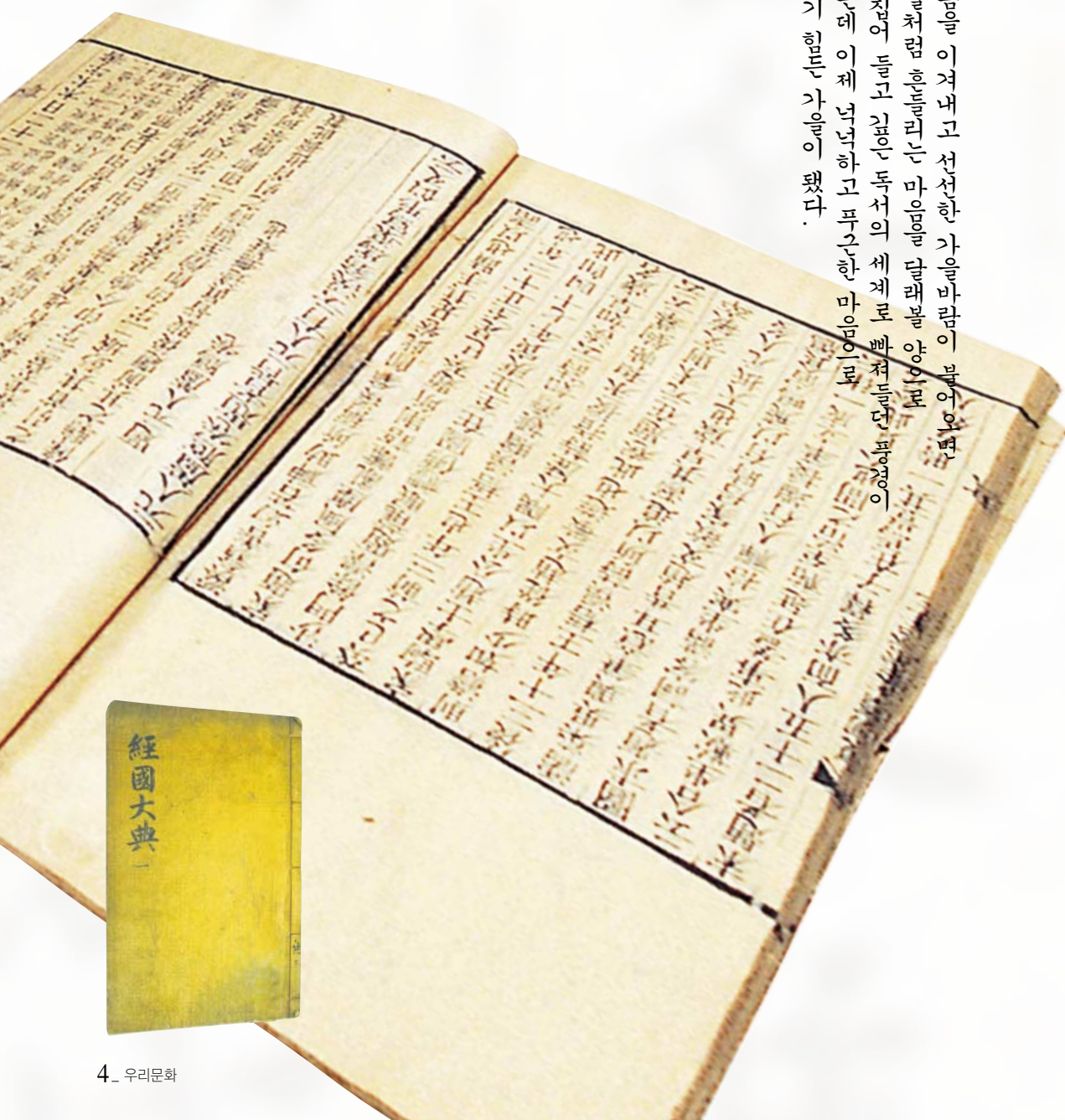


“꼭꼭 숨어라
송이버섯꾼
보인다” 74

- | | | |
|----|---------|---------------------|
| 22 | 우리말 테스트 |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
| 24 | 수필 | 잔잔한 꽃무늬 · 흑백TV 시절 |
| 26 | 문화정책 | 한국의 공예문화 살리려면 ... |
| 32 | 시 | 독립문 |
| 40 | 화보 | 빨래 |
| 48 | 문화정보 |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학과들 |
| 54 | 사랑방 | 직지, 그것이 금강하다 베스트 10 |
| 58 | 책 속으로 | 선비는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
| 64 | 문화뉴스 | 지역특성문화발굴 대토론회 등 |
| 70 | 문화원 탐방 | 천안문화원 |
| 80 | 문화탐방 | 육로로 다녀온 1日 금강산 기행 |
| 82 | 교육여행 | 온 가족이 가볼만한 미술관 |
| 86 | 책꽂이 | 의령실록 등 |

특집

무더군여를이서노니선선한가을바람은
 왜지하를차림하노니가마세미만
 책학원을진으로노니가마세미만
 엇그제갈매이책이책하노니가마세미만
 책학원을기쁘기애워됐다.



이 가을에 다시 만나는 우리의 옛 책 20

다양하고도 유익한 우리의 옛 책들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호롱불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볼 양으로 책 한권을 집어 들고 깊은 독서의 세계로 빠져들던 풍경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책 한권 읽기 힘든 가을이 됐다. 게으른 본인 탓도 있겠지만 바쁘게 살아내야만 하는 현실 탓도 없는 건 아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출판사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가을에만 책이 팔린다면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이냐’는 것이다. 그것도 가을이 계속 짧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책을 만드는 출판사나 책을 파는 서점이 지어낸 말이라는 얘기가 있다. 일년 중 매출이 가장 저조한 계절이 가을이어서 가을에 어떻게 해서건 판매율을 좀 높여보려고 그런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은 가을뿐 아니라 일년 내내 불황을 겪고 있으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반갑지만은 않을 수 밖에. 독서에 어디 때가 따로 있고 장소가 따로 있으랴마는 그래도 역시 독서에 대

한 단상은 가을이 제격인 것 같다. 소풍가기 좋고, 운동회 하기 좋고, 책임기도 좋은 계절 짧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독서에 대한 단상을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옛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옛 책’ 하면 홍길동전이나 장화홍련전, 춘향전 같은 고대소설을 떠올리기 쉽다. 아니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서를 떠올리거나...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높은 문화를 엿보게 해주는 많은 책들이 장르별로 다양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20세기 과학이 도달한 심오하고도 오묘한 진리를 통찰하고 있는 서경덕의 철학 문집 <화문집>, 삼국사기나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는 달리 사건에 중심을 두어 역사를 서술한 이극익의 <연려실기술>, 불교계 위대한 승려들의 전기인 <해동고승전>, 실학과 박제가의 개혁론이 담긴 ‘부강한 나라 만들기’의 지침서 <북학의>, 9백여 종의 참고서적을 참고하여 편찬한 방대한 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 국악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독특한 국악기들과 그 악기의 연주방법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있는 <악학궤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한 실학자 홍대용이 저술하였으며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담헌서>, 우리 나라 근해에 사는 어류의 분포와 습성, 형태 등을 기록한 희귀한 어류서적인 정약전의 <자산어보>, 조선 각도의 지리와 풍속, 기타 특기할 만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집대성한 전통문화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 고대로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쟁역사서인 <동국병감>, 우리 민족 역대 명장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전기 <해동명장전>, 우리 조상들이 즐겨먹었던 음식들과 음식을 만드는 비법을 알 수 있는 요리책인 <음식디미방>등 역사, 철학, 종교, 정치, 경제, 의학, 음악, 과학, 지리, 기행, 전쟁사, 요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지금 보아도 유익한 자료와 내용들이 책으로 엮여져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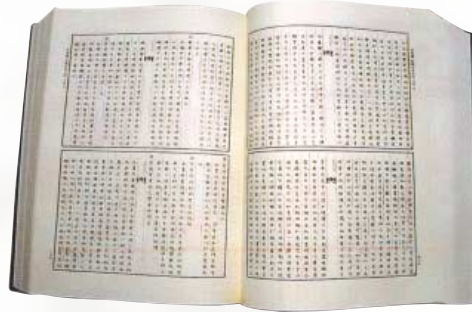
물론 지금까지 열거한 책들 중에 한글로 제대로 번역이 되지 못한 책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 또는 해설을 붙이거나 재해석하여 출간된 책들이 있어 대충의 내용을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제목과 책에 대한 개요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 가을 배가 부를 것이며, 나아가 관심이 생겨 한글로 다시 펴낸 책들을 통해 우리의 옛 책들을 읽어볼 기회가 생긴다면 뿌듯한 즐거움까지 생기리라. 그리하여 위에 열거한 책들을 포함해 장르별로 우리의 대표적인 옛 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고대국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들

우리 역사를 다루는 주요 역사서로는 물론 고대국가의 역사를 다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조선의 역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양도 방대하여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말고도 우리 역사를 알 수 있고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역사책으로 주목을 받는 책들이 있는데 바로 <일성록>과 <동사강목>, <연려실기술>이다.

<일성록>

<일성록>은 조선 성균인 정조의 뜻에 따라 규장각에서 편찬을 시작한 역사문헌으로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편찬이 계속되어 150년 동안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영조36년 1월부터 시작되어 순종4년(1910년) 7월25일(음력)에 끝나는 150년 동안 날마다 기록되어온 일기체의 역사문헌으로 그 권수는 모두 2329권.



한 권의 분량은 적으면 40쪽 정도이며 많으면 200

쪽이나 되는 것도 있으며 한 쪽은 20줄이고 한 줄은 25자로 되어있다. 임금이 열람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정자로 정성껏 필사되어 있으며 고종 말년부터는 국한문체도 보인다. 또한 승정원일기가 승정원을 거치는 모든 문서를 가리지 않고 모두 기록하고 있다면 <일성록>은 내용을 잘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승정원일기>에 없는 내용이 실려있기도 해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게 인정받고 있는 책이다.

<동사강목>

건국 이념을 합리화시키고 오류의 강요가 기본적인 경향이었던 역사관을 벗어나 객관적 사관으로 주목을 받은 역사서이다. 실학파의 거두인 이익의 제자 안정복이 저술하였으며 그 구성은 이익이 쓴 서문과 저자가 쓴 서문이 있고, 다음으로 목록이 있으며, 역사 편찬 기준의 설명이 되는 범례 총74조를, 범례 다음에는 <동사강목도>를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 실어 놓고 있고 그 후에 본문이 시작된다.

<동사강목>은 강목체제로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말까지의 한국사를 정리해 놓았는데 역사서의 주류를 이루는 기전체나 편년체가 사료를 정리하고 적당한 곳에 사론을 붙여 사관을 논하였다면 '강목'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강(綱)으로 간추리고, 그것을 다시 일일이 설명하는 목(目)을 붙이는 체제이다. <동사강목>은 상고에서 고려 말까지를 다룬 국사 개론서이기도 하지만 주요 관점은 조선 초기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고 사료를 고증적으로 정리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 체계를 세우려 한 근대적인 접근이 두드러진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연려실기술〉

〈연려실기술〉은 이공익이라는 인물이 기사본말체로 편찬한 역사책으로 이공익은 조선 후기 소론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그의 호가 ‘연려실’이다. 기사본말체는 인물을 중심으로 편찬한 ‘열전체(列傳體)’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고려사〉,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을 그 해의 연월일에 따라 기록한 ‘편년체’의 〈조선왕조실록〉과 달리 연대나 인물보다도 사건에 중점을 두어 그 결과와 관계를 기술하는 역사 서술의 방식이다.

〈연려실기술〉은 원집(原集) 33권, 속집(續集) 7권, 별집(別集) 19권 등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집은 조선 태조부터 현종까지의 283년간(1392~1674) 각 왕대의 주요한 사건을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인용한 책 이름을 밝혀 적어나갔고, 각 왕대의 기사 끝에는 그 왕대의 이름난 신하들의 전기(傳記)를 덧붙였다. 속집은 숙종 47년간(1674~1720)의 일들을 원집의 형식대로 적었다. 별집은 조선시대의 역대관직을 비롯하여 각종 전례(典禮)·문예·천문·지리·고전 등을 항목별로 그 연혁을 수록하고 역시 인용한 책 이름을 적어두었다. 기사본말체로 기록되었다는 점과 사건이 조금도 가해지지 않는 저자의 명석한 사관에 입각하여 공정한 필치로 엮어졌다는 점에서 ‘조선 야사의 백미’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저자인 이공익의 기구한 생애로 〈연려실기술〉은 오랜 세월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손에 의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동양사상의 위대한 대가들이 저술한 철학책들

우주(자연)와 인간(만물)을 유기적 관계로 이해했으며,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존재론적 측면보다는 생성변화론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인문과 도덕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사유(思惟)의 단계적 과정이나 논리적 추론보다는 본질을 밝혀내어 깨닫는 것을 중요시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동양사상에 바탕을 두고 우리 선조들이 저술한 위대한 철학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동양 최고의 사상가로 추앙받는 이황의 〈퇴계문집〉을 비롯하여 퇴계 선생과 쌍벽을 이루며 한국 사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온 이이의 사상이 담긴 〈율곡전서〉, 조선의 성리학 발전의 큰 기둥이며 주기철학의 선구자이기도 한 서경덕의 〈화담집〉을 살펴보자.

〈화담집〉

조선 초기 성리학자이며 주기론의 선구자인 서경덕의 문집으로 철학에 관한 논문과 서간문, 시문 등이 담겨있으며 단 한 책으로 되어 있어 비록 그 외모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실린 철학적 내용은 현재에도 놀랄만한 20세기 과학이 도달한 심오하고도 오묘한 진리를 통찰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하다. 서경덕의 제자인 박이정과 허태회가 편집하였고 선조 36년(1605년) 은산 현감 홍방이 간행하였으며, 영조 46년(1770년) 중간되었다.

내용은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에는 부(賦)·시(詩), 권2에 소(疏)·서(書)·잡저(雜著)·서(序)·명(銘)을 다루고 있으며, 권3과 권4는 부록으로서 권3은 연보(年譜)·비명(碑銘)·유사(遺事), 권4는 제문(祭文)·향축(享祝)·찬가(讚歌) 등 여러 편과 문인의 이름을 실어놓았다. 이 중에서 잡저 가운데 실려 있는 「원이기설(原理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는 지침서 <선가귀감>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으로는 <선가귀감>을 뽑을 수 있다. <선가귀감>은 휴정 서산대사가 집필한 저서로 선종에 대한 입문서이다. 다양한 불교이론을 간결하게 서술한 책이며, 불교의 2대 종파인 선종과 교종을 이론적인 면에서 종합시키고 있는 저술서이기도 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에서는 믿음과 깨침의 원리에 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수도의 기본이 되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3부에서는 수도생활의 바른 자세와 그렇지 못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실려 있다. 책의 제목처럼 불도 수행에 있어 거울이 될만한 말과 일화를 모아 지은 비평적 개론서라 할 수 있다.

氣說)」「이기설(理氣說)」「태허설(太虛說)」「귀신사생론(鬼神死生論)」 등은 그의 이기설과 역(易)의 사생론 및 음양에 대한 논술로 심오한 화담 철학의 결정이며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난 내용들이다.

<퇴계문집>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지금은 전 세계 철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퇴계 이황의 논문집이다. 퇴계는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그 중 <퇴계문집>은 해설보다는 자기 스스로 지은 글을 모은 책으로 주목을 받는 책이다. <퇴계문집>은 59권으로 제1권에서 제49권까지가 내집(內集)이며, 별집(別集) 1권, 외집(外集) 1권, 속집(續集) 8권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집의 제1권에서 제5권까지, 별집1권과 외집1권은 시이며, 내집 제6권에서 제8권까지는 소(疎), 차(筴), 사장(辭狀) 등 주로 임금께 올린 글이 실려 있다. 또한 내집 제9권에서 제40권에 이르는 32권은 편지로 되어 있는데 대개가 제자들에게 학문에 관해 쓴 글들로 편지 형식이지만 학술 논문으로 볼 수 있다. <퇴계문집> 제14권은 잡저(雜著)로서 「천명도설후서(天命圖說後敍)」, 「심경후론(心經後論)」 등 간단하면서도 퇴계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문이 들어있다. 퇴계 사상에 대한 연구는 아쉽게도 현재 우리 나라 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율곡전서>

철학·정치·경제·교육 등 여러 중심 분야에 걸쳐 율곡 이이의 사상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율곡전서>이다. 처음에는 문집과 전집 두 종류가 있었으며, 문집은 광해군3년(1611)에 문인 박여룡 등이 우계와 상의하여 편집하였고 후에 박세채가 편찬한 「속집(續集)」, 「외집(外集)」, 「별집(別集)」도 나왔다. 「전서(全書)」는 영조20년(1744)에 이재가 율곡의 5대손인 진오와 상의하여 원집에 속집과 외집, 별집을 합편하여 편찬한 것이다.

모두 38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1권의 「이일분수부」와 「풍악증 소암노승병서」는 유교와 불교 사상을 비교분석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며, 제15권의 「동호문답」은 경제재민의 방법과 당시 여러 사회적인 폐단을 논한 것으로 율곡의 사회개혁안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제18권의 「선비행장」은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며 제19권에서 27권까지의 「몽요결」은 당시 유학의 입문서라 할 수 있고 제28권에서 30권까지의 「경연일기」는 율곡의 역사관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율곡이라는 인물이 철학자나 정치가, 경제학자 등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철학·정치·경제·교육을 화합하여 위대한 사상을 이루어낸 인물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침이 되는 정치·경제 관련 책들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지침을 삼은 만한 여러 옛 책들이 있지만 그 중 우리 고유의 법률 사상이 실려 조선 왕조 500년 통치의 근본 법전이 된 〈경국대전〉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개방론과 그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산 정약용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던 〈북학의〉,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에 불멸의 자료이며 지방 행정의 거울이 되는 책인 〈목민심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들이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의 근본이 되는 법전으로 조선 태조의 건국에 따른 기본적인 교지와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태종의 관제, 병제 등의 정비와 세종에 의한 전제, 세제 등의 개혁, 세조의 혁신 창업 의욕이 서로 합하여져 조선5백년 통치의 근본 법전이 된 것이다.

육전(六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피는 각 전을 1권으로 엮고 있어 6권이며 이는 중국의 이상국가인 주(周)나라 6관제도(六官制度)에 유래한 것으로 정치·행정등 각 사회상을 6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조직하여 처리한 데 기인한 것이다. 관제와 관리의 임명 등 행정 조직을 규정한 법전인 「이전(吏典)」, 재정 및 민사 사항을 규정한 「호전(戶典)」, 과거와 제례 및 혼례, 외교, 교육 등을 규정한 「예전(禮典)」, 군제와 군사 등 병역에 관한 「병전(兵典)」, 형사법규와 노비에 관해 다룬 「형전(刑典)」, 도로, 교량 등 공조소관 사항을 규정한 「공전(工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중국 제도의 모방 단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독자의 통치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과 유교적 법치 국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학의〉

조선의 실학자인 박제가가 29세 때인 정조 22년(1798)에 저술한 책으로 중국을 다녀온 후 중국의 앞선 제도를 조선에 수입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개혁론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다. 즉 중국에서 보고 배운 것을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본 결과 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저술한 나라의 개혁에 관한 책이라 하겠다.

〈북학의〉는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편은 차선(車船-수레와 배)·성벽·궁실·도로·교량·목축·고시(賈市-상업과 시장) 등 39항목으로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시설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편은 전분(田糞-논밭과 거름)·상(桑-뽕나무)·농잠총론(農蠶總論-농업과 잠업)·과거론(科擧論)·관론(官論)·녹제(祿制-관리의 월급)·재부론(財賦論) 등 17 항목의 논설을 실어 농업기술의 개량과 외국무역의 이점을 설파하였으며, 당시 빈곤에 처해있던 조선 후기 사회를 구제하는 데 내용의 중심을 두고 있다.

〈북학의〉 서문에는 “(이 책은) 맹자가 진량에 대해 말한 것을 본떠서 〈북학의〉라고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남중국의 농본주의자인 진량이 북중국에 있는 공자의 학문을 배울겠다는 뜻으로 사용한 ‘북학’이라는 용어를 빌려 쓴 것으로, 농업을 위주의 사회인 조선이 상공업이 발달한 청의 선진 문화를 배운다는 뜻으로 북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조선 후기 학자이면서도 지방 행정관으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한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지방 행정의 지침이 되는 책이다. 지방관리의 부임으로부터 해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을 통하여 목민관이 반드시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할 실무상의 문제들을 조항으로 설정하고 다산의 심오하고도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해설을 한 책이며 간행년도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총48권 16책으로 되어있다.

그 내용은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해관 등 12개 편목에서 각각 6개 조항으로 하여 72조로 구분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전편을 통하여 지배층의 착취와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선민사상은 「원목(原牧)」, 「탕론(蕩論)」을 비롯한 일련의 논문들에 잘 표현되어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경제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는 책이다.

실생활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실용관련 책들

농업은 물론 산업의 여러 분야와 실생활에 참고가 되는 백과사전 같은 책들이 있는데 바로 〈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이다. 이 책들은 당시의 사회상과 산업기술의 수준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책들이며 자연과학 분야에도 좋은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

〈산림경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만선이 지은 책으로 종합적인 농서일 뿐 아니라 일반 자연 과학에 관한 박물지 성격을 띠며, 내외 문헌을 많이 참고하여 견문과 경험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경제〉는 발간을 하지 못한 채 필사본으로만 전해져 왔으며 4권 4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16지의 제목별로 구분되어 있다. 제1지부터 ‘터의 선정과 기초공사 및 건축의 제반사’, ‘보건 위생에 관한 내용’, ‘과목과 임곡의 재배법’, ‘화목과 화초·정원수의 배양법’, ‘양잠’, ‘축산과 목양’, ‘식품가공 및 저장’, ‘응급치료법’, ‘구황식물 요리법’, ‘전염병 예방과 치료’, ‘해충 퇴치법’, ‘각종 약재의 소개와 약학에 관

한 내용’ 등 제16지까지 경세제민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는 〈산림경제〉를 토대로 9백여 종의 참고서적을 이용하여 서유구가 저술하여 편찬한 방대한 백과사전이며 조선 후기 농업 정책과 자급자족의 경제론 등 실학에 기반을 둔 농촌경제 정책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여 농사 기술과 경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리지」를 비

롯하여 소채, 잡면, 목축, 전어, 영조, 기구, 양정, 보생, 의학, 식화에 이르는 1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농공, 산업, 육예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으로는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 일부가 있으며, 고려대학교에 있는 소장본도 해방 전에 이것을 전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저자가 소유했던 가장원본인 자연당경실의 패지에 쓴 것이 일본 오사가 시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동양의학을 원리와 비법을 알 수 있는 의학책들

의학서 하면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을 떠올린다. 그만큼 동의보감은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의학서로 외국 한의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준 임상의학계의 보물이 되는 책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과 함께 중국의 한의학을 우리 고유의 의학과 융합시켜 독자적인 의학을 발전을 꾀한 한의학서인 〈향약집성방〉, 사상철학을 창설한 이제마가 쓴 사상의학의 원전으로 한의학에 혁명을 일으킨 책 〈동의부세보원〉도 크게 주목을 끄는 의학서이다.

〈향약집성방〉

〈향약집성방〉은 세종 13년(1431) 집현전 직제학 유호통, 전의감정 노중래, 전의부정 박윤덕에게 명하여 정종 원년(1399) 제생원에서 편성된 〈향약제생집성방〉 30권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향약의 모든 방문들을 수집하고 분류·첨가하여 세종 15년에 완성을 보게 된 의약서이다.

내용은 각 병증들을 57대 강문(綱門)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959조의 소목(小目)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각 강문과 소목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병론과 약방을 출전과 함께 자세히 논증하고 있다. 이 〈집성방〉의 편저에 있어 그 서명을 「향약」이라고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고려 후반기로부터 발전되어온 민간에서 사용하던 향약방을 많이 채집한 것은 우리 고유의학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된 한의방과 융합시켜 우리 독자적 발전을 형성시켜 온 것으로 우리 민족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의학서라 할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

기존의 한의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임상의학 연구로 사상철학을 창설한 이제마의 서이다. 〈동의수세보원〉은 이제마가 고종 30년(1833) 3월 13일부터 다음해 4월13일까지 쓴 것이며 그 후 7년 동안을 다듬었고 그가 죽은 다음해 그의 문하생들이 간행하였다. 내용은 4권 29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체질에 대한 개념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구분하는 사상의학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중국 한의학설과 다른 의술로 한의학에 있어 가장 오래된 삼분서의 하나인 내경(內經)의 열론편(熱論篇)에서 육경의 음양과 경락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병증을 연관시켜 설명한 기백(岐伯)의 논설을 사상인의 관점에서 비평하고 정정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의학의 원전으로 한의학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킨은 물론 동양철학과 심리학, 윤리학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우리 조상들의 탐구정신을 알 수 있는 과학과 기술책들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훌륭한 옛 책들이 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이 쓴 〈담헌서〉와 역시 실학자이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어보〉와 조선 후기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성주덕이 엮은 〈서운관지〉를 들 수 있다. 〈담헌서〉는 우리 선조의 지혜와 과학정신의 우수성을 잘 엿볼 수 있는 실학의 명저이며, 〈자산어보〉는 그 내용과 구성 자체가 희귀한 어류학에 관한 책이고, 〈서운관지〉는 천문과 기상을 연구하는 기관인 '서운관'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관서지들을 엮은 책으로 천문과 지리, 기상 등 우리 과학사에 새로운 지표를 세운 귀중한 과학서이다.

〈담헌서〉



담헌은 실학자 홍대용의 호다. 홍대용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구가 지전설, 즉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이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약 3세기, 갈릴레오로부터 약 2세기 뒤이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땅이 움직인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홍대용이다. 담헌이 남긴 저술은 분량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으며 〈담헌서〉와 〈담헌외서〉는 그의 주요 저술을 망라한 것들이다.

내집(內集)이라 할 수 있는 담헌서에는 경학에 관한 부문, 정책론에 관한 부문, 학문관 자연관 역사관 사회관 국가관 등 종합적인 서술과 일기, 시, 서간, 묘문 등 기타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외집(外集)인 〈담헌외서〉에는 중국 북경 기행과 체류 중에 교유한 인사들과의 필담을 기록한 내용과 중국인들 친구들에게 보낸 서간문, 수학 과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 중에 기행, 서간문 등 기타 상당한 분량이 담헌 자신과 중국인 친구들의 친필로 되어 있다.

〈자산어보〉

한국 근해에 사는 어류의 분포와 습성, 형태들을 기록한 어류학총서라고 할 수 있

다. 1801년 정약용의 증형인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생활 중에 심혈을 기울여 엮은 우리 나라 자연과학서의 보물이며 최고의 어류학서이다. 저술한 연대는 1815년 순조 15년(1814)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산어보〉는 한국 및 중국의 고문헌을 다수 인용하여 어류·패류 및 해금 충수류 등 전 수산 동식물 155종에 대한 분포와 형태, 습성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어와 고등어의 회유(回游)와 분포에 관한 기록인데, 현재 동해와 서해에 회유하는 청어와 고등어의 실태를 그 당시와 비교하는 데 유일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각종 수산동식물의 방언(方言)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는 점과 의학상의 성능을 기록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서운관지〉

〈서운관지〉는 순조 18년(1818)에 조선 후기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성주덕이 엮은 책이며, 성주덕은 정조 19년(1795)에 우리 나라 역대 역법의 연혁, 북극 고도, 동서편도(위도의 측정)와 물시계 등 5항에 걸쳐 그 개요와 관측기기 및 제도를 설명한 〈국조역상고〉라는 책을 엮어 출판한 인물이다.

〈서운관지〉는 그것을 맡아 다루어온 관서인 서운관의 관서지를 엮은 것이며 다른 관서지와는 달리 과학의 중요한 분야로서 천문, 기상학, 지리학을 연구 교육하는 기관에서 쓰여진 연구서라는 점과, 이 책의 저자인 성주덕 자신이 역관으로서 거의 10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조선의 천문, 지리, 역법, 시제, 기상관측, 관측의 기 등에 대해 그 발달 과정과 제도의 변천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책을 엮었다는 점이 큰 의의를 갖는다. 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권에는 서운관이란 기관에 대해, 2권에서는 역서의 제작과 편찬에 대해, 3권에서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던 천문기상에 관련된 일들을 4권에서는 '서기'라는 항을 두어 서운관이 소장하고 있는 주요 도서와 관측기기를 다루었다.

우리 국토 방방곡곡 재미있는 풍속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지리서

옛 책들 중에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와 역사, 지리와 기후, 산물과 인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책으로는 지리서를 들 수 있다. 또한 옛날 사람들이 어떤 마을,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생활상과 풍속을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책도 바로 지리서이다. 지리서의 대표적인 책으로 1751년(영조 27)에 이증환이 지은 택리지와 그보다 270년 전인 1481년(성종 12년)에 펴낸 〈동국여지승람〉과 그 책을 다시 1531년(중종 26)에 증보하여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꼽을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성종 때 왕의 명으로 펴낸 조선 각도의 지리, 풍속 등 기타할 만한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한 지리서가 〈동국여지승람〉이다. 모두 50권으로 되어 있으며 강희명, 노사신, 양성지, 서거정 등이 편찬을 하였다. 이 〈동국여지승람〉을 중종 때 이행, 홍언필이 50권에 5권을 증보하여 만든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구성은 8도별로 되어 있지만 경도, 한성부, 개성부 세 곳은

전통문화 백과사전 <증보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는 문화의 황금기인 영조45년(1769) 편찬을 시작하여 고종 때인 융희2년(1908) 인쇄 · 간행되어 약140년에 걸쳐 완성에 이른 책으로 천문, 지리에서 내치, 외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집대성한 전통문화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 16고로 분야를 나누고 그 분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위」는 역대 역법과 우주 및 지구의 기본 개념과 천문관측의 개념 등 천문과 자연 채해, 동식물의 번이 등에 관한 분야를, 「여지」는 역대 각 부족국가와 왕국의 영역 범위, 각 주군의 연혁, 산천의 경계, 구내의 주요 궁궐 및 누각 등 지리에 관한 분야를, 「제계」는 역대 국왕과 왕실의 약력을, 「전부」는 역대의 토지 개혁 · 토지 측량 등 토지제도의 연혁을, 「재용」은 정부의 재정에 관한 분야, 「교빙」은 고려조 이전부터 외교에 관한 것을 「예문」은 역대 서적이나 저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증보문헌비고〉는 우리나라 최대의 제도 문물사를 다룬 책으로 또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최대의 백과사전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옛 책 중의 하나이다.

다로 구성되어 권1에서 권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경도가 상 · 하로 권1과 권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8도 중에서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등 5도는 각각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고,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로, 평안도는 서도와 동도로 나누어 지리학상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문화와 지리, 풍속은 물론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도 실려 있어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며 각 지방의 지리를 중요하게 여겨 정치적 입장과 산업의 발달, 군사적 배치와 규모 등이 실려 있기도 해 우리 나라 살림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택리지>

〈택리지〉는 이중환이라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지은 지리서로 원래 인쇄본은 없고 필사본만 전하다가 불과 60~70년 전부터 활자 인쇄본이 나왔다. 이 책은 전 · 후 두 편으로 구분되어 전편은 「팔도총론」으로 우리 국토의 도별 지리지이며 후편은 「북거총론」으로 우리 국토를 총론으로 다루고 있다. 「팔도총론」은 조선을 여덟 도로 나누어 각 도의 역사 · 지리 · 기후 · 산물 · 인물 · 취락 등을 서술하고 있으며 ‘살만한 곳’과 ‘살만한 곳이 못되는 곳’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후편의 「북거총론」에서는 이 책의 주제가 되는 ‘살만한 곳’의 입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약270년 전에 지은 책이지만 오늘날의 지리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흥미로운 점이 많은 책이다.

향토지 발굴이 지역문화 계승의 길

수원에서는 매년 정조능행차와 행궁에서 벌였던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재현되는 행사가 벌어진다. 호위 군사들과 악대를 비롯해 6천 명에 달하는 수행원들이 임금의 어가 행렬을 따라가는 진풍경을 엿볼 수 있으며 행궁에서는 잔치의 형식과, 잔치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모두가 한권의 책이 있어 가능했다. 바

로 <원행을묘정리의궤>라는 책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일부분이 파손·손실되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이 있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이다. <화성성역의궤>는 성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수원성의 공사 전말을 기록한 책으로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 인력, 물자, 기계, 건축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TV 드라마로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대장금’이라는 프로그램은 PD의 ‘짐의 병을 아는 사람은 장금이 뿐이나라.’라는 인조의 말을 기록한 책의 한 줄에 작가와 연출자의 상상력이 보태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이처럼 우리 역사속의 인물에 대한 활발한 재평가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 역사소설 등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당시에 기록된 책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의미의 옛 책에 대한 접근이 있다. 바로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이다. (<자산어보>가 아닌 <현산어보>라고 한 것은 흑산도의 흑(黑)자를 ‘茲’로 썼던 정약전이 친지들과 주고받은 글을 통해 ‘茲’를 ‘자’가 아닌 ‘현’으로 읽고 있다고 하여 책의 저자가 ‘현산어보’라고 주장하며 책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직 고등학교 생물교사가 <자산어보>와 정약전의 실학정신을 찾아 7년여 동안 흑산도를 다녀 흑산도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희미한 전설이 되어버린 정약전의 옛 이야기를 되살려 쓴 책이다. 이 책은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에,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선정도서로 선정되었다. 옛 책이 그 책과 책을 저자와 책의 내용을 사랑하는 오늘의 후손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런 옛 책이 어디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책 뿐이라.

전국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수많은 각 지역의 향토지들도 예로부터 여러 성격과 형태 등으로 엮어져 왔다. 물론 그 자체로도 소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겠지만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재해석과 재구성, 재출간 등의 되살리기 작업으로 지역성과 시대성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일깨워주고 우리의 원형을 새롭게 찾고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으리라. 그 역시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옛 책은 그래서 옛 책이 아니다. 책의 형태와 기록은 옛 것이지만 책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필요한 지식과 안목을 주고, 시대를 통찰하게 해주는 힘이 되며, 풍부한 상상력의 원형이 된다. 옛 책은 옛날에 만든 책이지만 그 수명이 다한 책이 아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태어나며 옛 선조들의 숨결을 이어주는 거울이 된다. 옛 책은 옛 것을 기록한 책이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해주어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창이 된다. 옛 책은 그래서 옛 책이 아니다. 옛 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재평가, 해석과 보급을 기대해본다.

글 _ 지호진 기자

한글날에 만난 사람 남 기 심 국립국어연구원장

“대중 스스로
우리말을
가꾸어 나가야”

‘모두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운동

지난 7월 초순부터 국립국어연구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말 다듬기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다듬을 말(외래어)과 다듬은 말을 살펴보면 ‘웰빙 → 참살이, 스크린도어 → 안전문, 스팸메일 → 쓰레기편지, 이모티콘 → 그림말, 올인 → 다걸기, 콘텐츠 → 꾸림정보, 파이팅 → 아자!, 네티즌 → 누리꾼, 무빙워크 → 자동길’ 정도다.

이른바 그동안 오로지 전문가들의 몫이던 외래어 순화를 대중의 몫으로 돌리는 ‘모두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malteo.net)라는 누리집(사이트)을 만들어 인터넷 시대에 맞게 새로운 차원의 말 다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곧, 국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누리꾼(네티즌)들이 다듬어야 할 말 또는 다듬은 말을 제안하고, 이 가운데 국어연구원에서 네댓 가지를 간추린 뒤 이를 두고 다시 참여자들의 투표로 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첫번째 순화 대상 용어를 ‘리플’로 내걸었는데 그 다듬은 말이 ‘덧글’이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인터넷 통신을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굳어져 쓰이는 관찬은 ‘말’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참여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9월 초에 ‘네티즌’이란 외래어를 대신할 말을 모집한 결과 ‘통신족, 누리꾼, 누리잡이, 누리모람 ...’들이 나왔으며, 이를 두고 다시 투표를 벌였더니 796명이 참여한 끝에 ‘누리꾼’이 전체의 40%를 얻어 이를 다듬은

말로 결정했다. 또 최근에는 ‘슬로푸드’(slow food)를 다듬을 말로 내걸었고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좀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친구세대간의 갈등도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고 우리말의 순수성을 살릴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시작한 국립국어연구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기심(南基心·68) 원장이 있다.

“정부와 국어학자 중심으로 국민을 계몽해 바른 말을 쓰도록 끌고 가는 국어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대중이 스스로 언어를 가꾸야 하며 우리 국민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단계에선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각 경제주체가 알아서 하듯, 정부의 표준어 정책이 뿌리내린 현 단계에서는 대중 스스로 국어를 가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남 원장의 소신이 국민 모두 함께하는 민주적 우리말 다듬기 운동으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생겨나면서 말 자체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모든 말투가 구어체로 급격히 바뀌고 심각한 축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가 은어·비어·속어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낸 새로운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국민과 함께 하는 말 다듬기 운동을 구상하고 실천하게 한 것.



고급 언어 구사하는 언어교육이 필요

“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선 말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란 우선 사회 내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이고, 문화와 생활을 만들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화와 정서, 생활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언어규범, 언어소통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면 일례로 법률문장, 제품설명서, 공문, 안전설비규정, 컴퓨터 매뉴얼 등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는 말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남원장은 예로써 설명한다. 국민의 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가정하고 조사결과 대략 우리 학생이 어휘구사능력이 1천개, 일본이나 미국 학생이 1천5백 정도로 결과치가 나왔다면 이는 학생간에 어휘를 알고 말하는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나라별 학생간 지식흡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표현의 차이, 창의력의 차이를 나는 것. 결국 어휘구사능력의 차이만으로도 문화가 고급인지, 저급인지를 판단해내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고급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 자체가 고급화가 되

‘월빙 → 참살이
스크린도어 → 안전문
스팸메일 → 쓰레기편지
이모티콘 → 그림말
올인 → 다걸기
콘텐츠 → 꾸림정보
파이팅 → 아자!
네티즌 → 누리꾼
무빙워크 → 자동길

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예로 같은 조건의 노동자가 언어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독서량의 차이, 표현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나아가 결국 노동의 질 차이, 기술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능력의 차이가 나타내는 영향력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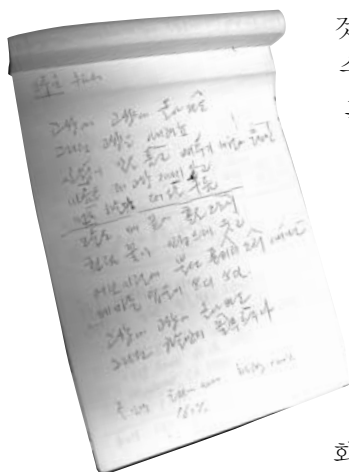
“사람이 말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말이 잘 갖추어져야 삶

에 질서가 있고, 말이 잘 다듬어져야 그 삶이 윤기 있게 되는 까닭이죠. 언어는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고 그릇입니다. 어법이 바로 서고 어문 생활이 가지런해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

좋은 글 읽어야 고급문화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국어라고 하면 맞춤법·표준어만 생각하고, 국립국어연구원이

국어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비롯한 용어, 외래어 등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 통일이 이뤄지거나 그 전이라도 서로 상대방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 곧 해소될 수준이란단다. 다만 자모순, 컴퓨터 자판 배열이 서로 달라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결책은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며, 문화 창달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즉 언어가 고급화가 되어야만 문화가 고급화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 수준이 향상되는 것만큼 우리 국민도 고급문화인으로 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언어가 고급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란 곳은 맞춤법만 연구하는 곳이란 편견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교과서만 달달 외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

국어교과서는 단순히 바른 국어를 위한 모범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글들을 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좋은 글을 많이 읽으면 표현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높이고 나아가 노동의 차이, 기술력의 차이가 나고 고급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좋은 글들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국민들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컨대 ‘틀리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국어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에서 일부러 맞춤법에 틀리게 쓰는 것도 ‘규범에서 벗어나 보려는 심리’, 즉 ‘부담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고 있는 것. 그런 만큼 국어연구원과 전문가들이 방향은 제시하되 잘못 쓴다고 국민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절히 물꼬를 터 줘 그 흐름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조용한 구실만 하면 된다는 게 남원장의 생각이다.

시대가 급변해 우리 국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절감하고 있는 남원장은 최근 우리 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동남아 근로자의 수가 늘고 또한 한류열풍과 더불어 우리말에 대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져 민족혼이 담긴 우리말 보급도 연구원이 주력으로 벌여야 할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국어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비롯한 용어, 외래어 등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 통일이 이뤄지거나 그 전이라도 서로 상대방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 곧 해소될 수준이란 다. 다만 자모순, 컴퓨터 자판 배열이 서로 달라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결책은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우리말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가지고 다루고 국어를 순화, 보급하고 국어자료를 수집, 가공하며 국어유산을 모아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는 곳이 국립국어연구원. 그리고 이곳에서 수장 남기심 원장이 국어정책의 갈래를 잡아가고 있다.

“평소엔 국어나 국립국어연구원에 대해 무관심하던 언론들이 10월 9일 한글날이 가까워져 오면 인터뷰 요청을 수도 없이 해 와서 10월 한 달 정도만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는 바로 우리말에 대한 언론의 일시적인 관심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 생활을 대변하는 우리말에 대해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어생활의 질서를 잡는데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꾸준히 우리말에 관심을 갖는 언론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우리말을 고급화시켜나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바쁜 일상을 핑계로 책 읽기를 게을리하는 우리에게 천고마비의 계절만이라도 좋은 글을 접할 수 있도록 책 한 권 추천해달라고 기자가 생떼를 피우자 김 훈의 ‘칼의 노래’를 권한다. 고급언어를 구사하는 길은 좋은 글 읽기부터라고 하니 책, 책, 책을 읽읍시다!

글·사진 _ 조윤희 기자

‘금새’가 맞을까요? ‘금세’가 맞을까요?

■ 다음 중 올바른 말은?

1. 소문이 [금새, 금세] 퍼졌다.
2. 오늘은 [웬지, 웬지] 우울하다.
3. 힘으로 [밀어부쳤다, 밀어붙였다].
4. 답을 [알아맞춰, 알아맞혀] 보세요.
5.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치뤘다].
6. 상대 팀을 [꺾고, 꺾고] 우승했다.

■ 다음 중 알맞은 말은?

7. 물건 값을 카드로 [결제, 결제]했다.
8. 산을 [넘어, 너머] 마을로 들어섰다.
9. 깊은 시름에 [쌓여, 싸여] 있다.
10. 이 자리를 [빌어, 빌려] 인사드립니다.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면서도 흔히 틀리는 우리말 열 개를 골라 문제를 만들었다. 한글날을 맞아 가족이 둘러앉아 문제를 풀어 보면서 우리말 실력을 확인해 보고 우리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TV의 잘못도 크다. 출연자들이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는 부정적인 뜻에만 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

다”(‘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가 옳음) 등 어법에 어긋난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는 열심히 공부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국어’와 ‘외래어’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에 있어” “~에 다름 아니다” 등 일본어식 표현이나 “좋은 시간 되세요”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 등 영어식 표현도 우리말과 글을 오염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고운 말, 바른 말은 따로 있다. 그만큼 평소에 주의해 말하고 써야 한다. “말이나 글은 그럭저럭 통하면 되는 것”이라고 우기지는 말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이 “줄” “하셈” “방가” “어썬요”로도 모자라 희한하기 짝이 없는 ‘외계어’까지 구사하는 것을 걱정하고 타이를 자격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말과 글이 뒤틀리면 사람들의 생각도,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어그러지게 마련이다. 실없고 때로 독하기도 한 일부 정치인의 못된 말버릇을 탓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언어습관부터 제대로 바로잡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더 밝아진다. 마침 한글날 아침이다.
(출처 : 중앙일보)

정답 : 1. 금세 2. 웬지 3. 밀어붙였다 4. 알아맞혀 5. 치뤘다 6. 꺾고 7. 결제 8. 넘어 9. 싸여 10. 빌려

을씨년스럽다 - 을사조약의 비통함과 허탈함을 표현한 데서 유래
얼레리 꼴레리 - 새로 부임한 나이 어린 벼슬아치 놀리던 말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뜻풀이를 해 놓은 안내서가 많이 나와 눈길을 끈다.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박남일 지음, 서해문집, 456쪽, 1만 4900원)=아름답고 재치가 넘치지만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옛말 1710 개를 실어 놓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 말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문을 곁들여 보여준다. 실제 작문과 일상회화에 도움이 되도록 표제어를 '우주와 자연' '생물과 사물' '사람과 사회' '경제활동' '일상생활과 문화'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록한 게 특징이다.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전2권, 조항범 지음, 예담, 각권 210여쪽, 각권 9000원)= '딴지' 등 뜻을 잘 모르고 쓰는 우리말이나 '사바사바'에서 '거시기' 까지 알고 쓰면 더 재미있는 우리말 등 검색사이트 네이버의 설문조사를 통해 네티즌 1만명이 뽑은 '가장 알고 싶은 우리말 100가지'를 쉽게 풀이한 책이다.

쓸쓸하고 스산한 풍경을 묘사할 때 쓰는 '을씨년스럽다'는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했던 을사년(乙巳年)의 비통함과 허탈함에서 유래한 말로, '을사년의 분위기처럼 쓸쓸하고 침통하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조선민족의 울분이 깃들어 있다고 충북대 국어국문과 교수인 저자는 말한다. 또 '김치'는 한자어 '침채(沈菜)'에서 비롯됐으며 '침채'는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라고 한다.

아이들이 놀릴 때 쓰는 '얼레리꼴레리'는 새로 부임한 어린 나이의 벼슬아치를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하여 놀림조로 부른 말에서 유래했다. 표준어는 '알나리꼴나리'인데 '알나리'가 어린 나이에 벼슬한 아이를 놀리는 말로 쓰였기에 그것을 이용해 아이들을 놀리는 말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한다. (출처 : 연합뉴스)



잔잔한 꽃무늬

나의 어머니는 잔잔한 꽃무늬의 옷을 좋아하신다. 무늬가 크지 않고, 작아야 한다. 색깔은 튀지 않고 잔잔하고 화사한 중간색을 좋아하시는데 반드시 꽃무늬라야 마음에 들어하신다.

나도 조금은 그런 취향이긴 하다. 체구가 작은 이유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아직도 소녀같은 고운 외모에 항상 책을 읽으시는 모습이 팔순을 넘긴 전형적인 할머니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어머니를 뵈러 가면, 틀니벗은 모습을 자식에게도 보여주기 싫으신지 황급히 틀니를 찾아 끼신 후에야 우리를 맞이하신다.

어머니는 경성사범학교(지금의 서울대)를 졸업하신 후, 첫 부임지 학교에서 아버지를 만나셨다. 1940년대의 로맨스는 어떠했을까? 아무튼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반하셨으리만큼 어머니의 모습은 아름다우셨을 것이다. 세라복을 입은 처녀시절 사진을 보니 아버지가 반할 만하였다.

부잣집 따님인 어머니는 집안에서 혼인시키고자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의 학교로 열심히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데, 어찌된 일인지 한번도 그 편지를 받아 본 일이 없다고 한다.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을 추진하셔서 마침내 두분의 결혼은 이루어졌다. 그 후로, 교장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오랫동안 두분은 인사를 다니셨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를 흠모하여 편지를 보냈다는 그 분은 정치가로 꽤 이름이 알려져 TV에도 자주 나오셨다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정치가를 특히 싫어(?)하셨던 이유도 그런 연유때문은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동창회를 다녀오시면 기분이 별로 안좋으신곤 하셨다. 친구의 남편들은, 장관, 박사,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대기업 사장 등등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다. 선생님인 남편의 직업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기에... 하지만 어머니는 큰 욕심, 검소하게,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내조하시며 우리 5남매를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만 최선을 다 하셨다. 큰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집안에선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지금도 아버지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어머니의 소박한 삶은 〈잔잔한 꽃무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글씨에 대한 재능을 알아보시고 끝까지 서예공부를 도와주셔서, 두 번의 서예개인전시회도 열어 주셨다. 어느 자식보다도 아버지께엔 어머니가 소중하시다는 말씀을 하실 땐 같은 女子로서 어머니가 부럽기도 하다.

얼마 전엔 결혼60주년을 맞아 조출하게나마, 회혼례를 마련하여 가족잔치가 있었다. 10년 동안 '우리가정신문'을 100호까지 만들어 오신 어머니! 이젠 눈이 침침하다시며, 5남매가 돌아가며 만들어 보라고 하신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가족간의 편지, 제자들 편지, 오래전 군대에서 오빠들이 보낸 글 등 모아놓으신 것들을 묶어보고 싶다고 하신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화목과 건강을 가훈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잔잔한 삶을 본받고 싶다.

흑백TV 시절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많지 않았다. 그 시절 국산 TV는 없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일제TV를 사오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지금은 으레 칼라로 보는 건줄 알겠지만 칼라TV가 들어온 건 불과 25년도 안되었다.

우리는 흑백TV도 꿀맛처럼 재밌게 보며 자랐다. 특히 식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외화를 손꼽아 기다릴 만큼 즐겨보았던 추억이 있다.

금발美人이 主人公인 홈드라마 <도나리드쇼>, 주연배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1인 2역 자매역을 한 <패티듀크쇼>, 주인공 패티의 남자친구 “리차드”의 특이한 제스처와 표정을 큰오빠가 골잘 흉내내곤 했었다. 가장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던 <전투>를 볼 때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손에 땀을 쥐게 했고 독일군은 나쁜 놈이라며 흥분하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방송하며 인기를 끌어왔지만, 독일문화원의 항의로 방송이 중단되었다.

로버트본이 나오던 <007 나폴레옹 솔로> 첩보 영화도 흥미진진하였다. 부인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끝없이 도망다니며 부인의 살해범을 찾아 헤매는 <데이빗 켄슨> 주연의 <도망자>도 우리 가족이 손뼉을 치며 즐겨보았던 기억이 난다.

귀엽고 양중맞은 주근깨 꼬마남매들이 나오던 <텔보가족>도 재미있었다. 유명들이 나오는 기괴하고 음침한 코믹드라마 <괴상한 가족>이란 외화도 생각한다. <왈가닥 루씨> 마녀의 딸도 있었고, 오빠들과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던 4부자가 말을 타면서 등장하는 경쾌한 주제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한 <보난자>도 빼놓을 수 없다. <윌튼네 사람들> <초원의 집> <제5전선> <형사 콜롬보> <디즈니랜드> 등등 그 시절 흑백으로 보면서도 왜 그리도 재미있었을까?

아마도 여러 식구가 한 방에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가끔 내용이 이해가 안되면 세 오빠에게 번갈아 묻기도 하고 “오빠! 저 사람이 좋은 편이야? 나쁜 편이야?” 질문할 때도 많았다. 코믹드라마를 보며 온 식구가 폭소를 터트리기도 하고, 슬프고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며 훌쩍거리기도 하였다.

지금은 흑백TV 구경하기도 어렵다. 집집마다 칼라TV가 방마다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방에서 혼자 TV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으니 혼자 보는 TV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각자 따로 놀고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물질의 풍요가 가족을 멀어지게 하는 게, 서글프다.



서양화가 _ 김혜숙

세종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서양화 전공), 홍익대 미술교육원 수료. 중고등 미술교사 · 문화센터 강사 역임, 국내전 · 해외전 · 초대전 등 200여회 작품, 강남미술대전 대상 수상. 현재 한국미협, 서울미협, 군자회, 기독교협, 삼원미협, 강남미협, 창작미협,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 서울 사생회 감사

한국의 공예문화 살리려면...

Macef Milan● - 2004 행사를 보며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한국의 공예문화의 현황과 對案

우리 한국공예문화산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많은 애로와 문제점은 떠 안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전통공예분야 산업이 枯死 직전에 놓여있는데도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건가.

종합계획과 예산지원을 세우면서도 전국에 산재한 영세업체나 匠人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필자는 産學協同의 일환으로 '지방화시대의 걸맞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일본의 주재발표자는 현재 일본의 事例를 발표했다.

한편 영세한 23개의 공예문화상품업체를 인솔하여 멀리 유럽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다녀 왔다. 모든 경비와 장소제 공으로 현지적응과 판로개척에 一助가 되기 위함이었다. 이미 파리 만국박람회 기념 행사에도 참가하여 영세한 업계지원의 성과를 얻은 바도 있었다.

이태리 밀라노 마체프(Macef) 참가와 감회

1년에 2회 개최되는 엄청난 규모인 <Macef> 행사에 한국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기에 애로가 뒤따르고 미리 대비하는 예약과 정보파악이 급선무이다 <참고: 마체프 홈페이지 www.fmi.it/macef>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종래 유럽계의 강세와 독점(?)체제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의 등장이다.

온갖 종목과 값싼 물량공세를 어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느 건물 3층 전관을 전체 전세내고 수십개 부스에 각기 다른 품목으로 예약과 선전을 진행할 정도이다.

6000여만원의 부스사용료를 지불한 한국코너에서는 4일간에 걸쳐 세계시장에 알리며 예약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아울러 우리 서울에서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국제적 규모인 서울 기프트 쇼도 주목할 필요가 많다. <Seoul Gift Show-2004>는 Coex 1층 태평양관에서 진행되어 인기를 모으며 성과를 얻었다. <홈페이지 참고/www.seoulgiftshow.com>

이태리 밀라노의 마체프와 같은 맥락이나 규모는 훨씬 적다.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규모도 적은 한국은 상해행사 등지로 점차 물리는 국제 바이어들의 발길을 어떻게 계속 잡아둘 수 있을까 걱정이다.

앞으로 우리 공예문화진흥과 관광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알아본다.

참고: 筆者가 주재 발표자로서 초청되어 강연한 강원대학교에서의~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상품개발과 그 전략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현황, 문제점과 해결

1) 제언

최근 들어서 문화의 가치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이 함께 발전되도록 업계, 학계 관계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듯이 세계 각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해 문화산업진흥을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추진하

고 있다.

문화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시장개방과 수출증대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시점에서 오늘날 여기저기서 개최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상품개발과 전략이란 주제의 세미나도 그런 맥락(脈絡)에서 개최되는 것일 것이다.

2) 공예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과 문화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힘들지만 최근 이에 관한 노력이 학계에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산업분야에서, 또한 국가간의 산업화 과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하는 필요성에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산업 개념은 1999년 2월 제정되고 2001년 1월 전문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은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체화(문화관련 콘텐츠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 포함)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으로서의 공예문화상품은 작가의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소재와 기술(Technics)에 실용성 즉 쓰임새, 기능(Function), 效用性(Utility)이 결합된 상품을 일컬으나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그 나라의 오랜 전통의 역사적, 문화적 변천의 바탕위에서 여과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3) 오늘의 공예문화 산업

공예문화산업은 실상 다른 문화상품산업보다도 역사적 배경이 오래된 가장 정통적이고 “한국적”인 문화산업이다.

다른 문화산업분야처럼 문화적인 요소에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와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공통점외에 제작, 유통에서의 영세성, 노동집약성을 지니고 있다. 소규모 수공업이며 성격상 수공예생산의 한계성을 갖는다. 다른

분야의 문화산업이 비교적 정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비하여 소외되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비일원화된 지원체제로 열악한 형편이었다.

요약하면 첫째, 창작과 기획단계에서 낙후된 디자인과 개발능력 및 실용품으로서의 상품구매력 부족으로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따른다. 전통공예문화관광상품은 특히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며 국가예산지원의 한계로 계승자가 없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제작·생산과정에서 작가와 공방 등 정보교류 부족에 따른 협력(協業)의 미약함으로 대량생산이 어렵다. 영세한 재무구조에 생산기술의 축적도 이루기가 힘들다.

셋째, 유통단계에서 유통·물류 인프라가 취약하여 소비자에게 이르는 단계가 취약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며 저급상품이 시장을 잠식하여 공예업계의 위기가 고조된다.

넷째, 비일원화된 각 부처의 인식결여와 미약한 지원에 일반인들의 인식부족도 지양되어야겠다. 이런 특성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설립되었다(2001.4.)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나 여러모로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소재파악조차 힘든 사업장과 유능하지만 실직·은둔상태의 젊은 디자이너, 공예작가들을 엮어가려고 한다. DB(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앞당기고 있다.

앞으로 타제조업이나 유통업과 차별화되고 독자적인 공예문화상품만의 분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업분류체계는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4) 한국공예문화산업의 특성과 문제점

최근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 등지의 低價공예문화상품이 다량 수입되면서 국내 문화 산업의 기반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유통체계와 관광객, 고객(Client)들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예문화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 공예문화관광상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혼란 ● 우리 역사적, 문화적 변화에 따르는 정체성혼란 ● 공예문화관광 상품과 산업의 모호, 혼란가중(유사용어 및 정의 혼란)이며

- ① 디자인 낙후
- ② 생산단가, 정보교류 부족
- ③ 유통, 물류인프라 취약
- ④ 소비자 인식 부족
- ⑤ 비일원화된 정부 지원등이 개선점이다.

가) 공예문화산업의 문제점

- 비정형화된 업체 구조.
- 사회적 인식부족.
- 진군대적인 유통구조와 영세한 재무구조.
- 수출경쟁력 취약(실용품으로서 상품력 부족)
- 생산, 유통, 물류, 인프라 취약.
- 작가, 공방 등 정보 채널 부재.
- 국적불명의 저급상품 시장 잠식.

나) 해결방안

- 업계 구조의 체계화 및 확대
- 홍보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
- 정부의 일관된 정책수립 지속과 비전(Vision) 제시
-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지원 투명성 제고
- 마케팅 조직적 강화
- 산학협동을 통한 종합적 방법과 기술연구
- 상품성 및 마케팅(販促) 시장조사 등 공동연구
-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이에 뒤따르는 기업, 유통회사, 학교와 공예관련 연구

소, 정부와 민·관·산·학·연을 네트워크와 연계시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원이 집중 관리되기 위해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저변화대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부 부처별 관련지원제도의 통합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전환 및 유통업체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통합적 인증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 제도 중심에는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관계부처별 이해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끌어낼 주심기관 (System Organizer)이 정립되어야한다

미국은 American Craft Council, 일본은 전통적공예산업 진흥협회, 영국은 Craft Council of England, 아일랜드는 Craft Council of Ireland, 프랑스의 The Permanent Assembly of Craft Chambers 등이 중심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예문화산업 및 문화관광상품 관련 통합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 단계적으로 문화관광부가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분류체계, 실태조사, 인증관리제도 등 문화로서의 상품을 우선 통합할 수 있는 법칙,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5) 한국공예 문화상품의 현황

1. 주 사업영역 : 공예문화상품유통업체(53.1%) 제작업체(46.9%)
2. 지역 : 서울, 인천, 경기지역(49.4%) 기타지역
3. 고용규모 : 2명이하의 고용인원 사업체가 전체의 65.5%
4. 평균매출액 : 업체당 1억원 이하 (사업체 매출액 대부분이 내수).
5. 영업비용 : 인건비 비중(55%), 노동집약적 생산구조.

6. 상품기획 : 개발(75.5%), 전문디자인 활용 빈도 저조.
7. 생산설비 : 생산라인 1개가 44.7%,
機械化率 기술설비 기술수준 저조함.
8. 유통 : 내국인(81.9%) 소매상(52.7%),
전체의 65.7%가 자사 판매장.
9. 인력부분 : 다른 산업과 같이 부족현상 심화.
10. 직업 만족도 : 불투명한 미래, 저임금, 직업 기피현상.
11. 도자, 목공예상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상품수량은 1
년간 평균 4,600여개, 제작일수는 230일, 제 제작인원
은 평균 2,3명이며 제작단가는 평균 15만원, 제작물별
매출액은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로 추정함.

6)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출범과 주요사업

한국공예문화진흥원(www.kcpf.or.kr)은 국가경쟁력을 지닌 고품질의 공예문화 상품의 발굴, 개발, 제작, 홍보, 유통, 판매를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서울 인사동 중심거리에 설립되었다.(2000.4.) 우리 문화의 원형과 창조성, 오랜 전통에 바탕을 둔 문화관광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지닐 수가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예문화관광상품의 개발·유통 효율적 지원 및 시너지효과를 통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www.kcpf.or.kr 02-733-9040~2)업체와 작가, 구매자를 직접 엮어주는 Shop을 인사동과 성남시 분당(서현역앞)에 운영하고 3호점을 기획중에 있다.



사업명	세부 사업	사업 목적
국내공예문화 관광상품 실태조사	표준통계모델 구축/설문작성/실태조사분석	
상품개발전략 세미나 및 사례발표	우수공예문화 관광상품 인증제 도입방안 등	
공예아카데미 CEO과정, 운영	우수상품 제작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현재 2기생 수료	
찾아가는 문화상품 전시 및 판매	광주, 대구 외	현지 생산자와 소비자 직결
우수공예문화 상품대전	문화상품과 지역특화상품 기획전시 및 판매	
우수문화상품 해외전시	미국, 몽골 전시를 통한 교류와 판매방안	
우수문화상품 전문유통관, 운영	유통관 "店" 2곳 운영중	
기획전시 및 대관전시	작가, 업체를 위한 발표 및 판매지원	
국가이미지 상징 공예 문화상품개발	디자인개발 보급 및 상품개발	
정보자료실 DB구축	시스템 보완, 도서 및 자료확충, 통계자료실 구축	

* 정보자료실 시스템(DB)구축 및 자료지원

- 공예문화종합정보센터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공예정보의 공유, 집중화.
- 공예문화산업의 실질적인 허브 기능 수행.
- 산업자원부 지원(1차 7억원)으로 이를 위한 공예분야 B2B사업 진행 중.
- 공예아카데미를 한국경제신문과 연대하여 운영중 1,2기 CEO 배출.

선진국 사례

미국 공예산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CODA조사에 따르면 실로 엄청나다.

순수공예품규모는 138억 달러에 달하고 장난감산업 30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공예학교, 출판물의 간접적 경제효과에 따르는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임)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인력규모와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



일본의 공예품 인증정책은 전통적 공예산업의 진흥에 대한 법률(傳産法)에 법제화되며, 전통적공예품지정 표시제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공예작가와 공방에 관한 참고 데이터베이스로는 (재)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www.kougei.or.jp)가 가장 신뢰된다.

영국 Crafts Council의 공예개발사업으로서는 관련자들을 육성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하며 전문적인 전시, 박람회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공예종사자들의 매출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공예정보센터 Photostore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엔 800명의 선별된 공예작가 40,000장의 작품이미지가 수록되고 있다.

프랑스 공예품 관련정책은 공예업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상공인명부에 등록된 업체들을 보면 820,000여개이며 400,000명의 매니저가 숙련공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20,000명의 매니저가 장인(匠人 Artisan Master)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결론

한국공예업체의 열악성과 세계진출을 위한 일환으로 한국 공예문화진흥원이 국내 소규모 공예업체를 인솔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프랑스 만국박람회(Foire de Paris, 04.4.29~5.9, 베르사이유 국제박람회장)와 이테리 밀라노 행사에 참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해외 행사는 지속된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행사였고 의의와 파장이 클 것이다. 곧 일본에도 우수문화상품을 선정하여 현지출품과 홍보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공예가대회(WCC)에도 참석하였다. (04.5.30.~ 6.7. 프랑스 파리)

앞으로 우리도 5000년 전통의 공예문화국답게 유치할 의향이다. ‘찾아가는 관광문화상품전시 및 판매’에도 계속 힘

을 기울이고 홍보카달로그(국내판/국외판)도 곧 제작한다. 문화상품은 관광과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상품으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따라서 상품위주의 활성화방안에서 관광객이 관광형태로서 보고, 즐기고, 구입하는 일련의 행사가 이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 방문기념으로 공예문화의 체험 코스, 공예 이벤트개최 및 공예테마의 거리조성 등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예문화상품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당국의 확실한 인증제가 시급하다.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선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문광부 산하기관의 하나인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설립되어 공예문화산업과 상품개발, 품질보호, 작가지원과 네트워크 구성에 앞장 서고 있다. 품질을 관리하고 국내외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참고로 관광공사, 문광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본다.

■ 중소기업청 명품인증마크

제도	민속공예품 인증제(중소기업청고시제1998-24호)
도입목적	민속공예품의 전승유지 및 품질향상 도모, 판로 촉진, 지역 특화상품 기여
평가기준	품질심사와 디자인 심사(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도 운영요령)
인증대상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민속공예품
인증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혜택	자금지원, 디자인 및 기술지도, 구매 및 전시판매시 우대
문제점	소비자 인지도 낮다/법령이 아닌 고시수준/민속공예품, 지역 특화상품 중심으로 지역마다 시행유무가 다름/인증심사기준의 타당성과 신뢰도 결여

■ 한국관광공사 명품인증마크

제도	한국관광공사 명품인증 마크(공사 임의 지정)
도입목적	국가경쟁력을 갖춘 한국고유의 관광기념물 브랜드 홍보, 제품 신뢰도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쇼핑관광 활성화
평가기준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장려상 이상 수상작
인증대상	장려상 이상 수상자
인증기관	한국관광공사
혜택	자금지원, 판매 및 전시 판매시 우대, 박람회 참가 및 명품점 입점
문제점	소비자 인지도 낮음, 법령이 아닌 회사 정책수준, 관광기념품 중심

■ 문화관광부 - 우수공예상품

제도	문화상품의 품질인증(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4항)
도입목적	우수공예상품 지정
평가기준	상품화 가능성, 전승 필요성, 국가, 지역의 상징성, 관광상품, 수출상품 가치
인증대상	해당 신청자
인증기관	미지정자(cf.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은 지정됨)
혜택	자금지원, 판로지원,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단지에의 우선 입주
문제점	소비자인지도 낮음, 인증기관 미지정, 세부규정/지침미흡, 각 정부부처 관련제도 통합력 미흡

비록 영세하고 소외되어 있지만 이제라도 상호 보완하고 협업체제(集成村 Cluster)를 통한 발전에 힘을 모아야겠다. 최근에 외국(중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등지)에 불고 있는 “韓流” 열풍을 잘 활용해야겠다.

예컨대 강원도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모델, 예컨대 강릉국제관광민속제 (04.6.11~27)와 문화유산인 김유정문학유적지, 이효석유적지, 박경리의 토지문학관등을 균형있게 개발하여 자치구와 정부취지에 준하는 산업개발상품 및 산업아이템으로 확산시킴이 바람직하다.

참고 - 산업 集成村(Cluster)조성 운영-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핵심이다.

*클러스터란 : 업종이 비슷하며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기업·기관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일컫는다 공단과 클러스터는 점이 있다. 예 : 공단-울산공단단지 또는 마산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전용단지 등, 클러스-

터-미국 할리우드, 실리콘밸리 등)

*부천문화 콘텐츠 클러스터(Cluster, 協業시스템) - 초기화단계

*이천 도자 클러스터 - 공급자위주 제작판매진행, 연구개발과 마케팅업무를 담당할 독자적 역량 부족이 문제점. 전승상인들이 主軸이 되어 기초적 정체성만 확보, 특허, 전문화 협업 부족, 공동작업·마케팅을 위한 기본신뢰가 미형성. *삼성경제연구소 자료 인용

*예) 공예산업 클러스터 조성정책 및 현황

2003년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사업추진기관 : 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 01년~ 계속, 사업예산: 150억원.

지원대상 및 규모 : 7개 지방자치단체(춘천 부천 청주 대전 전주 공주 광주) 규모: 사업기간내 연차적으로 1개 지역당 200억원 내외.

용도 : 시설비/장비구입비/건축비/네트워크 구축/인력양성 등

*공예산업클러스터 조성사례 - 광주문화산업 클러스터(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동구 전남 도청 일원), 규모 : 약 65천평, 중점육성분야 : 디자인 공예 캐릭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단체가 앞장 서고 중심이 되는 특화 및 문화상품의 개발, 보급이 지속성있게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공예문화산업계에도 B2B바람이 불고 있다. 공예문화진흥원에서 1차년도, 8여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초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원래 산업자원부의 소관으로 수출 및 공산품목의 생산, 공정, 판매 등 자동화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예문화산업도 대열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며 차제에 자동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B To B로 協業체제가 갖춰져야 손쉽게 세계시장으로 접속할 수 있다.



글 _ 장운우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대학원장, 박물관장, 산업미술연구소장 역임), 대한민국 공예대전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2회, 한국공예문화진흥원 現 이사장(문화관광부 산하), 서울시 문화상 수상('98) 및 심사위원('97, 2004) 외

독립문

독립문은 독립해 있다
 고가도로의 위협적인 휘어쳐 스침,
 아파트의 어지러운 고공비상,
 행인들의 화사한 치레와는 따로
 독립해 있다
 검버섯이 핀 채 길가에 나앉은
 양로원 노인이 거기 있다
 그만 떠나라고 눈치껏 사라지라고
 천지사방에서 올라대는
 구박의 등쌀이 노골적이다
 독립문은 독립해 있다
 그곳의 삼일만세운동,
 독립군 무장항쟁,
 한글운동 들의 상흔과 함께
 독립해 있다
 옛 서대문형무소 옥사,
 유관순 열사 순국지,
 순국선열 추념탑 들과도
 저만큼씩 함께 독립해 있다
 여전히 어른거리는 검은 그림자,
 독립은 독립해 있다



시인 _ 백우선

1981년에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하여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시집으로는 '미술관에서 사랑하기' 외 4권이 있다. 이메일 : bws@poet.or.kr 홈페이지 : www.poet.or.kr/bws



日·中의 역사왜곡과 위기의 국사교육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2001년 우리 사회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라는 일본 보수 우익단체가 만든 일본 중학교용 역사교과서인 ‘새로운 역사교과서’ 때문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날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미화하고, 침략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난 것이다. 새역모는 1997년 1월 일본의 일부 대학 교수와 문인 등 우익 인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교육이 전범재판인 동경재판의 사관은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의 역사를 어둡고 잘못된 것으로만 가르쳐 왔다고 비판하고, 이를 ‘자학사관’, ‘암흑사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 이 교과서는 제목과는 달리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였으며, 군위안부나 난징대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의 조직적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대일본제국 헌법과 교육직여를 찬미하고, 신화나 천황에 대해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등 황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인권이나 평화론을 비판하고, 전쟁을 금하는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교과서’라는 평을 듣고 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거센 비판과 일본 국내 시민단체의 불채택 운동 등으로 불과 521권(0.039%)만이 채택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새역모는 현재 진행 중인 검정교과서 개정 심사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다시 출원하였다. 개정 출원된 ‘새로운 역사교과서’에서는 국수적, 군국주의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2001년판에서는 모호하게나마 잘못을 인정했던 난징대학살과 조선인 군위안부의 강제연행에 대해 아예 삭제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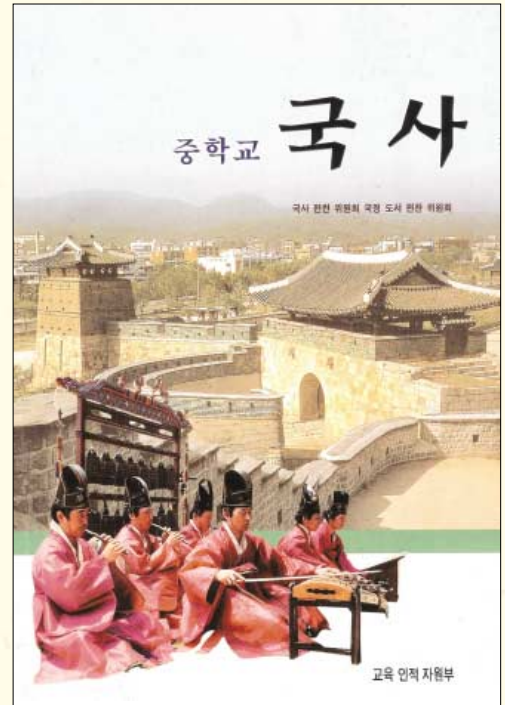
더욱 우려가 되는 2005년 8월에 2006~2009년에 사용할 교과서가 채택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사 빼앗기’라는 모습으로 다가온 중국의 역사왜곡은 더욱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는 약 200억위안(약 3조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동북변강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이른바 ‘동북공정’)라는 초대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과제에는 동북아시아 전반의 역사와 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과제는 남북한 및 한·중관계사이다.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중세 한·중관계사, 한·중 국경의 문제, 조선족 문제 등 한국사나 한·중관계사 전반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고구려사와 관계된 것이다. 문헌연구뿐 아니라 조사, 유적의 발굴과 정비, 박물관 신축 또는 증축, 주변 경관의 정비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연구 취지에서 동북지방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루는 ‘열점취초(熱點聚焦)’에는 고구려사와 함께, 변강이론, 몽골, 투르키스탄, 남사군도, 조어도 등의 국경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결국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기될 수 있는 국경이나 영토상의 문제점 등을 미리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 동북공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지나친 민족주의와 패권의식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중국은 ‘중화민족’과 ‘다민족통일국가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중화민족’이며,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중화질서 속에 모든 것을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패권주의이며, 동북공정은 이를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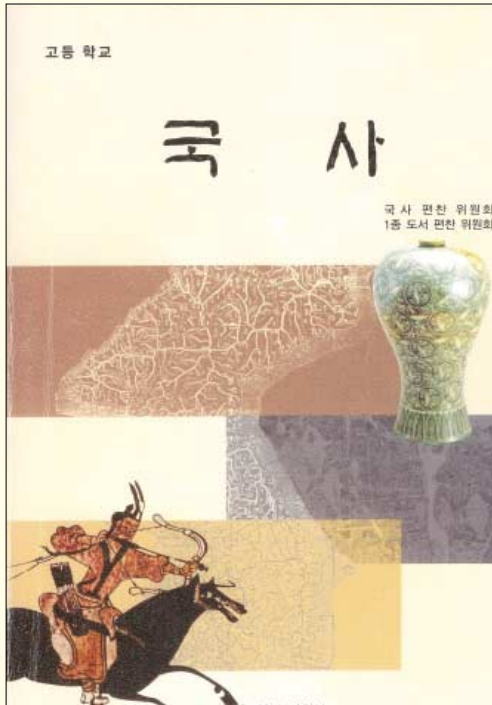


국사교육의 축소

일본에 이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부딪히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역사교육, 특히 국사교육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국사 수업의 시수가 줄어들었으며, 역사가 사회과 속의 한 과목으로 전락하여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1974년에 시행된 제3차 교육과정부터 독립교과였던 국사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에 통합되고 말았다. 국사의 수업시수는 중학교 2, 3학년에 각각 주당 2시간, 고등학교에서는 6단위로 종전과 차이가 없었으나, 교과 편제상 국사교육의 위상은 이전에 비해 한층 낮아졌다. 독립교과로서 국사과가 폐지됨에 따라 국사는 중학교에서는 사회의 한 영역,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회과 통합과 국사교육의 축소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1997년 2월 확정된 제7차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인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이다. 시험 시간표에는 국사를 찾아볼 수 없다. 분명 국사수업을 하는데 시험시간 표에 국사는 빠져있다. 어찌된 일일까? 사회시험 시간. 시험지를 받아 든다. 30문제 중 15번까지 지리와 일반사회로 이루어진 사회 문제가 나오고, 16번부터 국사 문제가 나온다.” 국사는 교과나 과목이 아니므로,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에 국사,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정에 한국근·현대사(8단위)와 세계사(8단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제는 외형상 제6차 교육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띤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국사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었으며, 내용구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 아래 전체적인 수업시수를 줄였다. 중학교(7-9학년) 사회과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총 12시간이었던 것이 7차에서는 1시간 줄어 11시간이 되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1시간은 국사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2시간씩이던 국사수업 시간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8학년)에 1시간, 3학년(9학년)에 2시간으로 1시간이 적어졌다. 고등학교 국사도 6단위(주당 3시간)에서 4단위(주당 2시간)로 줄어들었다.

중학교 국사 교수요목은 이러한 수업시수의 감소를 고려하여 편성되었다. 2학년에서는 고려시기까지를 배우고, 조선부터는 3학년에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사학습의 단절을 가져오고, 고려와 조선사회의 계속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크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함에 따라, 고등학교 국사는 반드시 1학년에 편성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8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 3년간 국사를 계속 배우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중학교 국사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고등학교는 분류사적 접근이라는 구성방식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수업시수의 축소, 서술 내용 분량의 경감 등과 맞물려 중학교 국사에서는 정치사 이외의 사회경제사나 문화사 내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고등학교 국사의 교수요목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한국근·현대사와의 계열성도 고려하여, 전근대사 중심의 분류사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개항 이후의 근·현대사를 형식적으로만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사교수요목의 구성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국사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느낌을 준다. 각 분야사별로 전근대까지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다가 근대사에 들어와서는 피상적인 모습만을 다루게 됨으로써 역사인식의 단절성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국사가 전근대사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한국근·현대사는 사실상 선택과목으로만 남게 되었다.

성적표 없는 국사 수업

사회 일부에서는 그래도 국사는 별개의 교과서로 별도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서 다루므로, 실제적으로 독립교과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교과운영을 보면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학교 국사수업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이다. 시험시간표에는 국사를 찾아볼 수 없다. 분명 국사수업을 하는데 시험시간표에 국사는 빠져있다. 어찌된 일일까? 사회시험 시간. 시험지를 받아든다. 30문제 중 15번까지 지리와 일반사회로 이루어진 사회 문제가 나오고, 16번부터 국사 문제가 나온다.” 국사는 교과나 과목이 아니므로,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적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생활기록부에 더 이상 ‘국사’라는 난은 없다. 사회시

험의 일부로 치러진 성적이 ‘사회’에 기록될 뿐이다. 이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이른바 도구과목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기술산업 등 대부분의 과목들이 독립적인 교과로 운영되고, 별도로 성적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학교의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진학 등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별도의 내신성적도 나오지 않는 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등학교 국사도 사회과에 속해 있으므로, 교육과정상 상위 개념인 사회과라는 교과 전체의 성격과 목표에 입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국사도 공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

근래 국사교육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환경은 국사교육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쇠퇴 이후 나타난 치열한 국가간의 경쟁, 컴퓨터나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효용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사회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이 쏠리고, 교육과정의 개정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학 내지 인문교육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사 과목이 중, 고등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하면 국사교육과정이나 중등학교 국사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물론 1980년대 중반 이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국사교육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었다. 그런데 그 관심은 주로 교과서의 서술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교과서 서술이 국사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제라면, 교육과정은 국사교육의 형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라는 외형적 형식은 학습 내용에도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바람직한 국사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제에서 국사교육의 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국사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약화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국사교육을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글 _ 김한중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저서 :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책세상), 역사교육의 이해(삼지원, 공저) 외 다수





빨래

누군가 가을 햇살에 빨래를 했군요. 나뭇나뭇 애호박이 잘 말라갑니다. 우리도 눅눅한 삶을 빨랫줄에 널 순 없을까요. (경기도 남양주 흥곡사)

글·사진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김기미씨는 우리문화의 뛰어남에 대해선 잘 인식을 못하고
다른나라의 문화를 더 잘 알고 좋아하는
우리의 현실세태를 꼬집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품의 대열에서
어깨를 겨누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금속공예가 **김기미 씨**

노리개 · 비녀 · 족두리 · 땡기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래요

연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요즈음, 고궁이나 경치 좋은 장소에 가면 결혼사진 촬영에 바쁜 이들을 만날수 있다. 바야흐로 결혼 시즌인 것이다. 두 남녀의 결실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인 혼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중대한 예절이다.

이러한 우리의 혼례문화를 웨딩주얼리와 접목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금속공예가 김기미씨다.

한국적 모티브와 현대적 감각 접목

사실 우리나라의 혼례문화는 서양식으로 오래 전부터 바뀌어왔다. 각종 혼례절차도 많이 생략되고 그 의미도 모른 채 형식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 고유한 혼례문화에서는 우리민족의 문화와 지혜를 엿볼 수 있기에 그 의미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금속공예가인 김기미씨는 혼례문화에서 선조들의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한국의 혼례는 전통적인 의례와 현대적인 의식이 결합된 형태로서, 이를 위한 각종 혼례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이들 혼례품 준비의 참 뜻은 바로 결실과 시작을 위한 정성과 예의에 있습니다. 요즘은 폐백(헌구고례)과 예단 등의 절차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혼례절차의 밑바탕에는 정성과 예의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김기미씨는 혼례때에 사용하는 가락지, 손거울, 노리개, 폐백기 등을 제작하였고,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의 파라다임명품관 그리고 주불한국문화원 등지에서 한국의 혼례 장신구에 관한 개인전도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혼례 장신구를 중심으로 ‘화아안(花雅雁)’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본격적으로 혼례장신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花雅雁에서 주로 다루는 품목은 혼례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혼례용 나무함을 비롯해, 금으로 장식된 남녀장신구(예물), 노리개, 비녀, 뒤꽂이, 족두리, 땡기 그리고 은으로 제작된 구절판, 폐백기, 보석함, 액자, 수저, 주발과 대접 등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주문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유행을 따르지 않는 디자인들이다.



화아안 제품들은 한국적인 모티브를 접목해, 전통을 살리되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한국의 美’인 자연스러움과 단아함 그리고 편안안 느낌을 줍니다. 특히 천연염색의 실크로 제작된

노리개의 매듭이나 천연 칠과 하나의 원목으로 제작된 혼례용 나무함들은 인간문화재, 명장과 같은 우리의 전통의 숨결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제작하셔서 우리 수공예품의 정신과 생산과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비’를 모티브로 작품 만들어

김기미씨는 5년전 어머니를 떠나 보내는 슬픔을 겪었다. 어머니가 작고하신 후 49

일찌 산소를 찾은 그는 노랑나비가 무덤 위에 사뿐히 앉았다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산소 위에서 맴돌던 나비가 어머니의 넋이 아닌가 싶었어요. 어머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회고로 나비를 소재로 작업을 해 오다가 '꽃과 나비'는 우리의 전통의식에서 부부화합과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혼례와 관련된 혼례장신구 제작과 이어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제품에는 '화아얀' 브랜드의 독특한 '꽃과 나비'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조그마한 들꽃에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신비로운 우주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들꽃의 모습을 작품의 소재로 하여 그의 감성에 담아 내면세계가 반영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를 좋아한다. 봄이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꽃, 부를 상징하는 목단꽃,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꽃 등도 김기미씨의 작품세계에서 빠짐없이 보여지는 꽃들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금속공예가의 길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김기미씨는 서울대 대학원 공예과(금속공예 전공)를 졸업하면서 본격적인 금속공예의 길로 들어섰다. '손으로 만드는 일'인 공예를 통해서 그는 차갑고 딱딱한 물체인 금속을 작품화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다. 대학 전공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가 금속공예에 종사하면서 겪은 공예가의 길이란 '끊임없는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서울대, 한양대, 국민대, 단국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GIA KOREA에서 보석감정자격증도 취득하였고, 2003년부터는 '기미(紀美) 주얼리 갤러리'를 설립하여 금속공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한 '기미주얼리'에 대한 김기미씨의 포부는 남다르다. 바로 '기미(紀美)'를 세계적인 명품주얼리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것이 그의 야망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얼리 분야에서 대부분이 외국의 유명 브랜드들로 잠식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해외시장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우리고유의 명품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의 명품 주얼리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런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미씨는 이러한 명품 주얼리 브랜드의 도전을 ‘한국적인 모티브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으로 승부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것에 대한 재현과 답습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재해석하여 전통미와 현대미를 동시에 접할 수 있고 현대인들의 정서와 감성에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의 디자인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혼례장신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혼례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상들의 숨결과 지혜가 흠뻑 묻어 있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 알게 되어 우리 전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져가고 단절되어진 우리의 전통 중에서 좋은 부분들은 되살려서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창조하는 일들이 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고 되새겨 봅니다.” 그는 2004년 2월 주불한국문화원에서 ‘꽃과나비’를 주제로 공예전시회를 가진 이 유도 한국의 전통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그의 개인전은 우수한 우리 문화의 멋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의 장이 되었다. “당시 많은 프랑스인들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우리의 것들을 보고 한국에도 작은 문양이나 세밀한 기법등에서 표현되는 깊은 뜻과 의미가 담긴 아름답고 고유한 작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김기미씨는 우리문화의 뛰어난에 대해선 잘 인식을 못하고 다른나라의 문화를 더 잘 알고 좋아하는 우리의 현실세태를 꼬집어 줄 수 있는 우리만의 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품의 대열에서 어깨를 겨누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기미씨는 ‘기미 주얼리’와 웨딩주얼리 ‘화아안’이 명품브랜드로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고유한 혼례문화의 지혜와 창의적으로 만든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자부심을 토대로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 브랜드로의 비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저의 브랜드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02-543-2252

혼례절차

두 사람의 만남의 결실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인 혼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자 예절이다. 현대의 혼례는 양가 부모들의 상견례와 약혼으로 시작된다. 전통 혼례의식에서 행해지던 청혼, 허혼, 납채, 납폐와 친영 등은 대부분 간소화 돼 결혼식 전날 보내는 납폐만 행해진다. 혼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의혼(청혼과 허혼)

예전부터 중매에 의존하던 남녀의 만남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연스런 교제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애결혼과 기존의 중매결혼이 양존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양가의 의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예를 갖추어 신랑측 어른이 신부측 어른들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것이 예의이고 순서이다. 반가에서는 중매인을 내세워 결혼여부를 결정한 뒤 신랑 집에서 청혼서를 보내면 신부집에서는 허혼서를 보내 결혼을 승낙했다.

단을 비롯해 오냥과 쌍가락지 등의 각종 신부용 혼수품을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의례이다. 원칙적으로는 결혼식 전날 보내는 것이나 일주일 정도 내에서 좋은 날을 택해 신랑의 친구 가운데, 첫 아들을 낳고 부부간 금실이 좋은 사람을 함진아비로 정해 신부집에 보내게 된다.

이때 보내는 물품은 보자기에 싼 혼서지와 청홍사, 청홍지 및 채단, 오냥 그리고 장신구(쌍가락지, 손거울) 등으로 구성된 혼수용품을 넣은 함으로 구성된다.

2. 납채 : 신랑의 사주단지를 신부집에 보내는 절차

(1) 사주

혼인의사가 이루어진 후 신랑측 혼주가 신부집에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신랑의 동생 혹은 삼촌이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넣은 사주단지를 신부집에 전달한다. 이때 사주는 창호지를 다섯 칸으로 접어서 그 한가운데 적으며 봉투 앞면에는 사주 혹은 사성이라고 쓰고 뒷면은 근봉이라고 쓴다.

(2) 연길

길일을 선택해 혼인 날짜를 택해 보내는 절차.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혼인 날짜를 받아 백지에 적은 택일과 연길 편지를 함께 신랑집에 보낸다. 연길보는 겉이 청색, 안이 홍색의 겹 보자기로 만 들어진다.

3. 납폐 : 혼수함을 신부집으로 보내는 절차

청혼이 됐다는 감사의 뜻으로 신랑집에서 혼서지와 채

4. 친영 : 혼례식을 올리는 절차

결혼 당사자들의 의사나 집안 가풍에 따라 전통 혼례나 서구화된 현대식 혼례 가운데 택해 행해진다. 결혼식에 참가하는 친지나 하객들의 편의와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혼식장, 성당이나 교회, 혹은 경우에 따라 큰 건물의 강당이 이용되기도 한다. 또 현대에는 결혼식날 헌구교례(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큰절을 올리는 것)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혼례절차는 부부의 화합과 자녀 출산에 대한 기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조상을 섬기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탕으로 효와 경의 자세로 일관된다. 혼수준비에 있어서도 격식이나 형식에만 치우친 허례허식이 아닌 다복한 친지들의 정성과 손길을 통해 혼수품을 마련하고 혼수는 분에 넘치면 복을 잃는다는 일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과하게 지나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학과들

요즈음, 대학가에서는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다. 최근 대학들은 특성화 전공을 확대해 대학의 지구력과 비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 관련 전공은 전통문화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지는 가운데 졸업생들의 졸업후 취업률도 높아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통문화 관련 전공들을 살펴보자.

전국 대학 가운데 전통문화 관련전공은 크게 문화재관리 관련학과, 전통미술공예 관련학과, 문화유적학 관련학과, 보존과학 관련학과 등 4개 범주의 전공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이밖에 전통문화 분야의 육관사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통문화학교가 있다.

전통문화 일꾼 길러내는 전통문화학교

백제의 옛 도읍지인 부여,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곳에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인 4년제 국립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문화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을 위해서 2000년 개교한 전통문화학교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특성화된 전통문화 인재양성의 메카로서 비전을 가진 대학이다.

전통문화학교는 6개 학과, 총 정원 560명 규모로 지난해 신입생 경쟁률은 5.5대1인 학교다. 학과를 살펴보면 문화재 보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의 보전은 물론 미래 조경문화 창조를 위한 조경전문가를 길러낼 ‘전통조경학과’, 현재적인 한국 미술 공예의 전통을 확립시켜 나갈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건축 전문가를 육성하는 ‘전통건축학과’, 문화 유적 발굴의 선봉장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보존학과’ 등 6개 전공으로 기본정원 20명으로 소수정에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시설과 장학제도 역시 잘 뒷받침 돼 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기숙사는 전체 학생의 100%가 이용하고 있고 최첨단 영상강의실 및 어학실습실, 실험 기자재는 물론 헬스장과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여가공간이 마련돼 있다.

또한 해외문화에 대한 견문 확대와 국제적인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외 어학연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고 타 국립대학 보다 저렴한 등록금과 더불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적 장학금, 교외장학금 등 폭넓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배출된 졸업생들은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를 비롯해 대부분이 문화재 관련 분야로 취업해 명실상부한 문화재 특성대학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문화유적학 관련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의 두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먼저 고고학은 인류가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분석해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변동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미술사학은 과거의 미술품을 연구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인간미술 활동의 변천상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으로 나뉘며 지역적으로도 연구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 고려대 서창캠퍼스(고고미술사학과), 충북대(고고미술사학과), 원광대(인문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목포대(역사문화학부 고고학 전공), 경북대(고고인류학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인문학부 고고미술사학과), 동아대(인문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부산대(고고학과) 등의 대학에 문화유적학 관련전공이 있다.

이 과의 졸업생들은 전문적인 수업과 연구를 통해 학계에 진출하거나 각종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또 고고학과 미술사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익힌 광범위한 문화적 지식을 토대로 언론계 및 사회의 각종 문화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경제 및 사회발달에 따라 이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 앞으로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



지역	학교수	대 학 명
서울	1	서울대(고고미술사학과)
충청	2	고려대 서창캠퍼스(인문사회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충북대(고고미술사학과)
호남	3	원광대(인문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목포대(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영남	4	경북대(고고인류학과) 동국대 경주캠퍼스(인문학부 고고미술사학과) 동아대(인문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부산대(고고학과)
계	10	

보존학과 관련학과



한 나라, 한 민족의 문화는 바로 그 나라와 민족의 잠재 가치를 의미하며, 민족의 자존과 미래를 향한 도약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오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선조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보존학과는 이런 취지로 문화예술품의 보존·관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보존학과는 문화재 및 예술품의 전 영역에 걸쳐 이론과 실질적인 보존, 보전, 보호 방법론을 습득함으로써 졸업생의 진로가 다양하다.

지역	학교수	대 학 명
서울	1	서일대학(민족문화과, 2년제)
인천/경기	1	웅인대학교(문화재보존과학과 4년제)
충청	3	한서대학교(문화예술보존학과 4년제) 공주대학교(문화재보존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박물관과 2년제)
호남	2	예원예술대학교(예술경영문화재학부 4년제) 나주대학(문화재과학과 2년제)
영남	3	경주대학교(문화재학부 문화재보존학 전공 4년제) 동양대학교(문화재발굴보존학과 4년제 2004 신설예정) 경북과학대학(문화재과 2년제)
계	10	4년제 6개교(웅인대, 한서대, 공주대, 경주대, 예원대, 동양대) 2년제 4개교(대전보건대, 경주과학대, 나주대, 서일대)

※ 공주대학교, 웅인대학교 대학원과정 운영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담당,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관, 유적관리소, 화랑 및 전국에 산재한 골동품 관련업체 및 기업문화재단의 학예직 직능에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문화지원운동은 졸업생 진로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관리 관련학과

문화재관리 관련학과로 영남의 경주대학교 문화재 관리전공이 있다. 천년고도 경주에 소재해 문화재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과 계승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198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문화재 관리 전공은 기존의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 미학을 포함한 각종의 유사 학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문화 및 상호관련이 있는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구체적, 실증적으로 조사·연구해 한국문화의 올바른 위상을 확립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향유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체험기를 출간하는 것이 출판계의 붐을 일으키기도 하듯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문화재 관리 전공도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미술공예 관련학과(전국 65개 대학 개설)

미술, 공예, 동양화, 한국화, 미술사학, 도자공예 등의 전공이다. 전국적으로 65개나 되는 대학에서 개설돼 있다. 특히 공예 전공은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효율적인 도구들을 쓸모있게 또는 조형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실기를 바탕으로 이론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과내용을 지도한다.

지역	학교수	대 학 명
영남	1	경주대학교(문화재학부 문화재학 전공 4년제)



지역	학교수	대 학 명
서울	18	건국대(공예학과), 경희대(미술대학 한국화전공), 고려대(동양화), 국민대(미술학부, 도자공예학과), 동국대(미술학부), 동덕여대(미술학부), 덕성여대(동양화전공, 인문학부 미술사학전공), 상명대(한국화), 서울대(동양학과), 서울여대(공예학과), 성균관대(미술학, 동양화), 성신여대(공예과, 동양학과), 숙명여대(공예과, 한국화전공), 이화여대(미술학부, 공예학부), 중앙대(공예학과, 한국화학과), 추계예술대(동양화전공), 한성대(동양화), 홍익대(동양학과)
인천/경기	8	경기대(미술학부 도자공예전공), 강원대(동양화전공), 대진대(미술학부), 명지대(미술학과), 수원대(동양화), 인천대(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인하대(예술체육학부 미술전공), 용인대(한국화전공)
충청	10	건국대충주캠퍼스(공예학과), 건양대(한국화학과), 단국대천안캠퍼스(동양화전공), 목원대(미술학부 동양화전공), 배재대(미술학부), 서원대(미술학과), 청주대(미술학부), 충남대(공예학과, 한국화), 충북대(미술과, 동양화전공), 한남대(회화전공)
호남	7	목포대(미술학과), 전남대(미술학과), 호남대(미술학과), 전북대(미술학과), 군산대(동양화전공), 조선대(한국화전공), 원광대(순수미술학부)
영남	17	경남대(한국화전공), 경북대(미술학과), 경성대(미술학과, 공예디자인학과), 계명대(미술대학), 고신대(한국화전공), 대구가톨릭대(미술학부, 동양화전공), 대구예술대(동양화전공), 대구한의대(미술학과), 동국대경주캠퍼스(미술학부), 동아대(미술학부), 동의대(미술학과), 부산대(미술학과), 신라대(미술학부, 공예학부), 안동대(미술학과), 영남대(미술학부), 울산대(미술학부), 창원대(미술학과)
강원	4	강릉대(미술학과), 강원대(미술학과), 관동대(미술과), 상지대(공예학부)
제주	1	제주대(미술학과, 한국화전공)
계	65	

미니 학과 탐방

배재대 관광·이벤트 경영학과

지역 축제 등 이벤트 전문기획자 양성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벤트의 개발과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과 이벤트 산업의 총체적 기획을 연결하는 그 대표적 학과가 배재대 관광·이벤트 경영학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관광산업 및 이벤트는 비단 기업 매출의 극대화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국제회의, 엑스포나 올림픽같은 세계적 규모의 이벤트 등 여러 형태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관광·이벤트 전공은 관광과 이벤트 산업의 총체적 기획을 연결시킬 수 있고, 관광에 대한 전반적 분야와 이벤트 분야와의 조화로운 연계로 관광상품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전문 기획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관광·이벤트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에는 관광호텔 및 여행업체, 레저 및 콘도업체, 이벤트 기획업체, 국제회의 전문업체, 전시전문업체, 관광관련정부부처(문화체육부 관광국, 시·도 관광관련부서), 정부투자기관(한국관광공사, 공항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협회, 각종 관광관련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21세기 켄처 코디네이터로 키울 터”

장헌덕 전통문화학교 교학과장



“학교설립이 문화재청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졸업생들이 정부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한옥과 탑, 정자 등 전통문화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학교내 캠퍼스에서 만난 장헌덕 교학과장(전통건축학과 교수)은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서 대학본부가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장헌덕 과장은 현 대학생들의 최대이슈인 ‘청년실업’의 문제가 전통문화 일꾼들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취업률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엔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학교 출신들은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도공·목수·염료의 대가는 물론 문화행정공무원, 대학교수, 학예연구직 등의 전문가로 양성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하면 현장 소장격인 문화재관리기술자 필기시험을 면접 받는데 앞으로 졸업생에 대한 특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통문화학교는 보다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조만간 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산업학과, 문화유적학과 등을 신설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 학예연구사나 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의무적으로 전통문화학교에서 연수를 받도록 문화재청과 협의중이기도 하다. 장 과장은 앞으로의 비전이 큰 전통문화학교에 대해서 고교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했다.

“우리 대학은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아는 학생들을 기다려요. 예스러운 것을 아는 사람,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을 21세기 켄처 코디네이터로 키워갈 것입니다.”

직지(直指), 그것이 궁금하다 베스트10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독서는 문자가 주는 최상의 선물이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인류역사에서 정보혁명에는 모두 네 번에 걸쳐 일어났다. 언어, 문자, 금속활자, 그리고 컴퓨터의 발명이 그것. 그 중에서도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활자를 이용해 책을 간행하여

보급함으로써 정보의 대량전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 금속활자는 제일 먼저 우리 선조들이 발명했다. 이른바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이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초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원판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1377년에 간행된 ‘직지’ 하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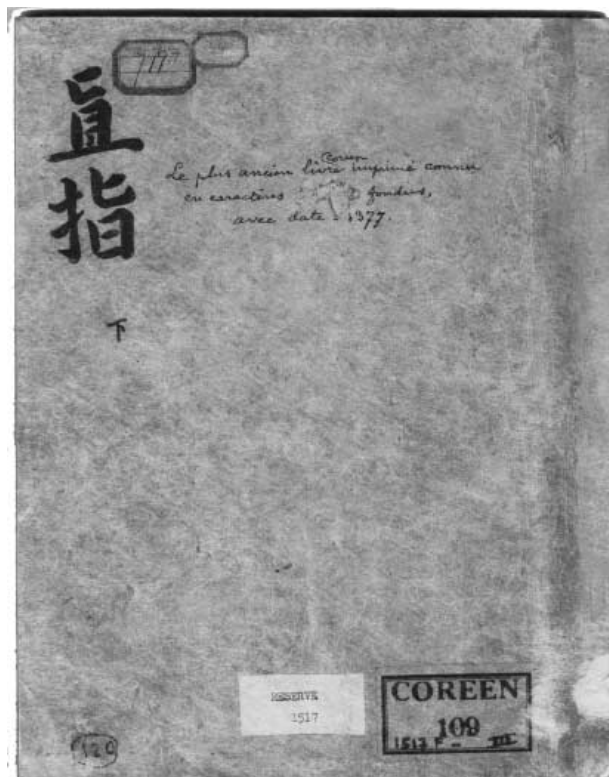
하나. 직지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이 책의 이름을 줄여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직지’는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주최한 ‘책’ 전시회에 ‘직지심경’으로 잘못 소개되기도 했다. 불교에서 경(經)은 불교 경전을 뜻하는데, 이 책은 불경이 아니므로 ‘직지심경’이라 부를 수 없다.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간추려 상·하 두 권으로 엮은 책으로, 1377년(고려 우왕 3년)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다. 이 금속활자본 두 권 중에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 1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378년 여주 취암사에서 찍은 목판본 3부와, 흥덕사·취암사 필사본 각 1부가 있다.

둘. 누가 썼나

‘직지’를 편저한 백운화상의 범명은 경한(景閑, 1298~1374)이고 호가 백운이다. 백운은 1298년(충렬왕 24)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했다. 백운은 중국 원나라의 석옥청 공화상을 찾아 임제종을 전수받았으며,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우리나라로 돌아와 황해도 해주 등지의 사찰에서 주지로 있었으며, 왕명을 받들어 기우제 행사를 주관하고 승려들의 시험을 관장하는 시관(試官)이 되기도 했다. 말년에는 경기도 여주의 취암사로 옮겨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 공민왕 23년(1374년)에 77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경한은 고려 말기에 임제종의 시조가 된 태고보우국사와 조계선조를 다시 일으킨 나옹혜근선사와 더불어 선교사(禪敎史)에서 3대 인물로 손꼽히는 조계종단의 큰스님이다.



셋. 무엇이 써여 있나

‘직지’는 석옥선사가 전해준 ‘불조직지심체요절’에 ‘선문염송’과 ‘치문경훈’ 등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과거 7불과 인도 28조사, 중국 110선사 등 145가의 법어를 가려 뽑아 307편에 이르는 계(偈), 송(頌), 가(歌), 명(銘), 서(書), 찬(讚), 법어(法語), 문답(問答) 등을 수록하고 있다. 경한이 불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역대 제불조사(諸佛祖師)에서 선(禪)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을 초록(抄錄)했다.

책의 상권에는 과거 장엄경 때 나신 비바시 등 3불과 현겁 때 나신 구류손 등 석가모니 4불을 포함하여 7부처님의 극히 간략한 계어(偈語)를 필두로, 이들 7불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은 인도의 제1조인 마하가섭 이하 제28조인 보리달마까지의 28존, 달마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혜가선사 등 5조사, 그리고 그 각 법맥을 이은 후세의 여러 고승 중 안국대사에 이르기까지의 법어로 되어 있다.

하권은 아호대의화상 이하 고덕화상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이 도를 깨치고 권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책의 끝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 이름을 붙였다.



하권의 앞부분에는 선사들이 도를 토론한 문답이 실려 있으며, 뒷부분에는 도를 깨치고 기뻐서 지은 대승찬 10수, 인간의 번뇌는 본래 고적한 것을 알리는 과시14수, 심경의 오묘함을 읊은 요원가 등이 있다. 또한 동산양개화상이 집을 떠나면서 부모님께 올린 글과 신라시대 고승 대령선사의 말씀도 수록돼 있다.

중심주제인 ‘직지심체(直指心體)’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법구(法句)에서 따온 말로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심성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넷. 무엇 때문에 썼나

‘직지’는 학승(學僧)들이 정규교육 과정의 최고과정인 대교과를 마치고 난 뒤 수의과(隨意科) 학습 때 쓰는 교재이다. 이 책은 송나라 때 도원이 저술한 ‘경덕전등록’, 고려 때 혜심이 편찬한 ‘선문염송’, 남송 때 영은보제가 저술한 ‘오동회원’을 비롯한 사전류와 그 밖의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경한은 스승이 주었던 책에서 선을 공부하는 학승들을 위해 ‘일체의 사심과 망념에서 떠난 진실된 마음을 중시하는 무심무념을 궁극의 경지로 삼은’ 자신의 선풍(禪風)을 펼치기 위하여 이 책을 편찬했다.

다섯. 어떻게 배포됐나

연화문인, 석찬, 달잠, 시주 비구니 묘덕이라는 인물이 1377년 청주목 밖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해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다. 석찬은 백운화상의 시자(侍者, 수행비서격)였고 비구니 묘덕은 흥덕사 금속활자본과 취암사 목판본의 ‘직지’를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또 석찬과 달잠은 백운화상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묘덕의 시주를 받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했다.

여섯. 어떻게 구성됐나

‘직지’는 상·하 2권이다.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상권이 전하지 않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있는 하권은 표지를 제외하고 39장인데 첫째 장은 사라지고 없다. 매장마다 11줄씩, 각 줄마다 18~20자씩 인쇄돼 있고 마지막장에 인쇄 시기, 인쇄장소, 인쇄방법이 기록돼 있다.



일곱. 어딜 가면 볼 수 있나

취암사에서 간행된 ‘직지’ 목판본은 상·하권이 완전한 1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서각 및 영광 불갑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금속활자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덟. 왜 직지인가

‘직지’는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직지는 최소한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 보다는 78년, 중국의 ‘춘추번

로' 보다는 145년이나 앞서 있다. 우리 조상들의 창의력과 열이 담긴 자랑스런 보물이 아닐 수 없다. 이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직지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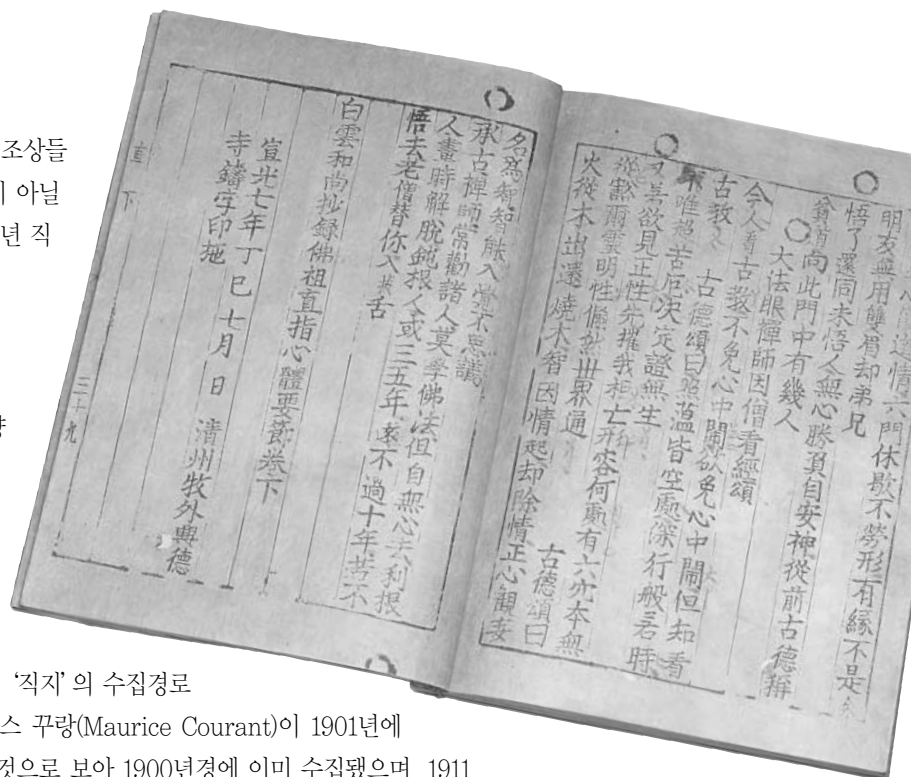
아홉. 왜 프랑스에 있나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 문헌실에 소장돼 있다. 이는 1886년 한 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뒤 주한대리 공사로 부임한 폴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서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하였는데, 그 속에 ‘직지’가 포함됐던 것이다. ‘직지’의 수집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1901년에 저술한 ‘조선서지’의 보유판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1900년경에 이미 수집됐으며, 1911년 드루오호텔에서 경매됐다. 플랑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간 대부분의 고서는 모교인 동양어학교에 기증했다. 그러나 금속활자본 ‘직지’는 앙리 베베르(Henri Vever)가 18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1950년경에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됐다.

열. 찾을 순 없나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활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지’는 또 다른 인쇄본이 국내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참선을 중요시한 불교 서적이므로 유서 깊은 사찰에 소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대학도서관중 도서정리가 미쳐되지 않거나 고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각 도서관, 고서를 취급하는 서점을 중심으로 한 거래처와 그 서점들, 과거부터 권력이나 재산상 우위에 있던 집안의 후손들, 과거부터 선비로 공부를 계속하던 학자의 후손들, 호기심이 많거나 과거의 것을 취미로 모으는 분들, 고서를 갖고 있으며 방치하고 있는 가정들 등등에 보존돼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백운화상조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해 주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봄은 어떨까.

• 이 글은 청주직지축제 사이트 (<http://www.jikjifestival.com>)에서 부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선비는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책문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1611년 광해군 3년 별시문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당시의 시급한 일을 잘 파악하는데 있을 뿐이다. 만약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면, 비록 날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차려 입고 밤 늦게 저녁을 먹으며 부지런히 힘쓴다 해도, 끝내 위태로움과 패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옛날 요순시대와 하·은·주 세 왕조에서 제대로 행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또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서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시켰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한·당 이래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줄줄이 난리가 일어나 망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어리석고 사리판단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깊은 못과 살얼음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을 모르듯,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인재를 불러들여 나랏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선비들은 의견이 달라 서로의 차이를 조정할 길이 없고, 서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화합을 이루려는(協恭) 미덕도 찾아볼 수가 없다.

쌀인 폐단을 깨끗하게 없애고, 전란을 겪고 있는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토산물 대신 쌀을 바치도록 공납을 개선해서 백성

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도, 토지의 주된 생산물로 세제를 정한다는 본래의 뜻에 어긋난다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토지의 경계는 당연히 정확하게 나누어야 하지만, 남양의 간척지는 실상과 다른 점이 많다. 호적과 지도도 정리해야 마땅하지만, 호패법 때문에 소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요령 있게 공적을 이룰지 모르겠다. 이 네 가지 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으로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뛰어난 인재들이다. 필시 일찍부터 마음속에 북받쳐오르는 뜻을 품고 있었을테니, 저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다 표현해보라. 내가 직접 살펴보고겠다.

대책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임숙영(1576~1623, 선조 9~인조 1)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참으로 꼭 막혀 식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바닷가 한 구석에서 올라온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분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님을 바르게 보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피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해도, 인재를 널리 초빙한다는 시대가 도리어 저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계책이 시대의 잘못을 보완하기에 충분해도, 좋은 의견을 널리 받아들인다는 조정이 저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문고를 울려 제 심정을 아뢰고 싶었습니다. 정치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진실을 구중궁궐에 알려, 사방의 소리를 들으시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그 때문에 분수를 모르는 망령된 자라는 죄를 얻는다 해도 회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주상전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릴 계획을 갖고서, 정책을 묻기 위해 특별히 말씀을 내려 수많은 선비들을 이끌고 부추기셨으니, 더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비록 잘못된 천거로 조정에 나와 전하의 물음에 답하게 되었지만, 어찌 정성을 다해 아뢰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책문에서 스스로의 실책과 국가의 허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비록 임금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사안이라 해도 그것이 참으로 이 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저이기에 곧바로 남김없이 지적해 아뢰겠습니다.

부디 전하께서 조금이나마 관용을 베푸셔서,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정직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면, 참으로 나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하겠습니다.

후세들이 망한 까닭을 거울로 삼아

첫째, 책문에는 국가운영을 위한 큰 구상과 옛날의 이상적

인 시대를 염원하는 성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를 해나갈 방도를 논해 풍속을 교화하고, 이 시대의 시급한 일을 가려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시니, 여기서 전하의 지극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대로 시행했던 조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전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에 이상적인 시대였던 요순시대와 하·상·주 세 왕조가 오랫동안 잘 다스려지고 안정되었던 까닭은, 그들이 도덕적인 교화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한과 당 그리고 그 뒤의 왕조들이 줄줄이 난리로 망한 까닭은, 그들이 도덕적 교화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강령은 바르게 정했으나,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항목은 정했으나, 큰 강령이 올바르게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시대는 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은 어질고 후덕한 나라였으나, 군사적 책략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세 왕조가 흥한 까닭을 살펴서 그때의 조치를 모범으로 삼고, 후세들이 망한 까닭을 거울로 삼아 그때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땅히 취할 방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책문에는 인재를 구해 폐단을 없앤다는 말과 세금제도를 바르게 정하고 부역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전하께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재를 가려 쓰는 까닭은 나랏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나랏일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서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화합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납을 개선하는 까닭은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니, 토지의 주된 생산물로 세제를 정한다는 원칙에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전답을 측량해도 늘 실상과 다른 것이 문제이니,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위세를 보이셔야 합니다. 호적은 본래 옛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니, 오늘날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시급한 과제이지만, 서로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화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략)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은 한 몸이지만, 귀하기로는 한 나라의 으뜸이고, 부유하기로는 모든 백성을 소유한다.” 이처럼 백성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한 몸에 있기에 하루라도 근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매사에 근심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근심해야 할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보다 큰 일을 먼저 처리하고, 가벼운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며, 천천히 해도 될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나라의 진짜 큰 우환과 조정의 병폐에 대해서는 문제를 내지 않으셨으니, 저는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며, 중요한 문제를 애오라지 덮어두기만 하고 의논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갖가지 정치적인 업무가 너무나 복잡해 임금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으십니까? 전하께서 마땅히 먼저 근심해야 할 것이란 중궁의 기강과 법도가 엄하지 않은 것, 언로가 열리지 않은 것,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 것, 국력이 쇠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는 위기와 멸망의 운수와 재앙과 난리의 조짐과 관련된 것이어서, 나라에 위기 상황이 오면 바로 이런 네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는 책문에서 당연히 이 문제들을 먼저 언급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려받은 것을 지키지 못한 왕

저는 『춘추』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노나라 제후의 종묘인 세실(世室)의 집이 무너졌다.” 이것은 조상의 사당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조상의 사당을 정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군자가 이렇게 비난했는데, 하물며 조상이 물려준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조상이 물려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어가야 할(繼志述事) 도리를 실추시켰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바로 조상이 물려준 자리이고, 전하께서 이어받은 나라는 바로 조상이 물려준 나라입니다. 조상이 부지런히 애써서 얻은 것이니, 전하께서는 애초에 함부로 그 자리에 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태조태왕과 태종대왕께서는 나라를 이루고, 세조대왕과 성종대왕께서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대대로 현명한 임금들의 태평한 세월이 지금까지 200여 년이 이어졌습니다. 선대의 임금들께서는 측근을 엄하게 단속했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배척했으며, 총애하는 사람을 억눌렀고, 책임을 게을리 하고 안일에 빠질까 근심함으로써 후대의 임금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전하께서는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조상의 뜻을 받들고, 옛 제도를 제대로 잇기 위해 조상의 공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팎의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 중상모략과 아첨을 멀리해야 합니다. 임금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바로게 인도하려는 간쟁을 존중해 무비판적으로 세속에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관리로 나아가는 벼슬길을 깨끗이 해서, 자격이 없거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임용하는 비리를 끊어 없애야 합니다. 환락과 안일을 즐기는 습관을 경계해, 오만과 게으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구차하게 낡은 폐습을 그대로 따르기만 할 뿐,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님께서도 사방 멀리까지 지혜를 밝힐 수 있는데도, 왕비와 후궁들이 권력을 쫓아 놓단하는 것은 살피지 못하십니다. 정의가 만물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도, 대각의 재상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하십니다. 또한 덕이 이상적인 제왕의 교화를 이룰 수 있는데도, 보통사람들이 금령을 어기는 것은 단속하지 못하십니다. 이상적인 옛 시대의 융성한 도를 회복할 수 있는데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마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십니다.

(중략)

직언이 금기가 된 이 시대

저는 또한 『춘추』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공자 구가 졸했다.” 이것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물고기를 구경하러 가려는 은공에게 공자 구가 충고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달과 날짜까지 적은 것은, 그만큼 융숭하게 예로 대접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충직하게 충고했던 일을 『춘추』에서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직 어진 신하만이 바르게 간언을 할 수 있고, 현명한 임금만이 간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리를 지켜야만 군주와 신하가 허심탄회하게 정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에서 언관을 둔 것은 충심으로 간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몇몇 언관이 간언한 일로 죄를 받았으니, 이는 결국 전하께서 언관을 둔 까

닭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으려다가 도리어 임금에게 죄를 받았으니, 이 때문에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초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바른말을 할까 경계하고, 형은 아우가 직언을 할까 경계합니다. 저마다 이 시대의 금기가 된 직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쪽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지금은 잘 보이고 아부하는 것이 풍조가 되고, 부드럽게 꾸미는 것이 절개와 지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런 것으로 충애를 굳히고 몸을 보전하는 계책을 삼게 되었으니,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직간을 해야 한다는 도리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모두 전하께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신하에게 내리던 형벌인 묵형이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의 옳고 그름을 명쾌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언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기강, 언로, 도리, 국력을 다시 세워야

저는 『춘추』에서 우虞나라가 망한 것을 ‘멸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진짚나라 사람들이 붙잡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이미 우나라가 세력을 잃어서, 민중들이 군주가 아닌 보통 사람을 붙잡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존속되려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형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신뢰가 인심과 풍속에 튼튼히 뿌리내려서, 꺾어도 꺾이지 않고 흔들어도 흔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에서 재난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고, 밖에서 적이 침략해도 막아내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백성들은 나라에 의지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보호한다지만, 정치적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관직을 맡은 사람들은 작은 성과에 만족해,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한때의 이익에 연연해, 장기적인 계획을 소홀히 합니다. 위에서 직무를 게을리 하면 아래에서는 생업을 잃고, 위에서 혜택을 베풀지 못하면 아래에서는 분노가 쌓입니다. 이 때문에 전하의 나라는 난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마치 나무가 안에서 썩고 집이 안에서 무너지듯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기울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군주와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해 하늘의 명령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힘쓰지 않고, 마치 태평성대라도 만난 듯이 걸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나라 안에서 병장기를 가지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기근이 일어난 데다 도적까지 겹쳐오니, 땅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깨지는 것 같은 변란이 아침저녁에라도 들이닥칠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력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갖 법도가 바로잡히지 않고, 갖가지 정무에 결함

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경연을 비워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할 방책도 잃어버렸고, 백성을 보살피지 못해 대대로 나라를 보전할 도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역이 그치지 않아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는데도 일정한 규정 없이 마구 세금을 징수해, 갓난아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백성들이 극도의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기강은 날마다 문란해지고, 풍속은 날마다 붕괴되며, 인륜은 날마다 무너지고, 선비의 기풍은 날마다 저속해져서, 재앙과 이변이 자주 나타나고 변괴도 연거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쪽과 북쪽의 국경마저 위태로워, 변방을 굳게 지켜야 할 형편입니다. 섬나라 오랑캐는 독기를 뿜어대며 틈을 엿보고 있고, 북쪽 오랑캐는 흉악한 욕심을 드러내며 틈을 노리고 있으니, 오늘날의 근심스러운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중략)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

옛날 당나라의 유분은 문종을 위해 대책을 내면서 환관의 폐해를 과감하게 지적했는데, 당시에는 환관의 폐해를 입밖에 내는 일이 금기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코 해야 할 말을 다한 것은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죄를 불러들이고, 말이 흐르면 화를 부른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고 국정이 더욱 어지럽게 되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임금에 관련된 것이나 임금이 싫어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풍조를 좇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속된 선비처럼 왜곡된 말만 따라하면서 인재선발을 맡은 관리의 기준에만 부합하려고 힘써, 전하의 은총을 흠쳐서 임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

이라는 것을 대략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심각하게 경계하십시오. 대체로 자만하면 뜻이 날로 교만해지고, 마음이 날로 게을러지며, 덕이 나날이 깎이고, 공이 나날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만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온갖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아무리 전하의 덕을 칭송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믿지 마십시오. 임금의 비위를 맞추려는 간사한 행동을 물리치시고, 존호를 올리겠다는 요사스러운 논의를 물리치십시오.

자신을 억누르고, 하늘의 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존하면서, 겸양의 도리를 숭상하십시오.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다스림이 융성하지 않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화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교화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아무런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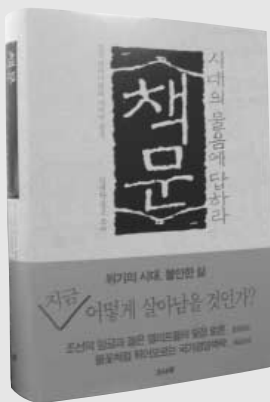
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써 수양하면서 부지런히 정치를 행하면, 하늘처럼 만물을 덮어주는 높고 밝은 지혜를 더욱 더 얻게 될 것이고, 만물을 감싸안아 살아가게 하는 산처럼 넓고 큰 덕을 점점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은 요순같은 경지에 이르고, 나라는 요순의 세상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찌 임금님께서 시의에 맞게 조치하지 못하는 폐단 때문에 근심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급하고, 절실하며, 근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죽기를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삼가 대답합니다.

(중략)

이 글은 '책문' (소나무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왕과 엘리트 선비들의 '치열한 문답' | 소나무



왕이 물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선비가 답했다.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입니다” 광해군과 선비 임숙영의 문답이다.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이 어떻게해야 하는가”라는 명종의 질문에 “진리를 탐구하고 소인을 가려내야 합니다”라며 근본을 논한 노진. 특히 “정벌이나 화친이냐”라는 선조의 질문에 “정벌은 힘, 화친은 형세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박광전, 왕의 부름 앞에 목숨을 걸고 답을 낸 이는 대과 최종시험의 응시자 33명. 이들은 초시와 복시를 통과한 뒤 왕 앞에 선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다. 대과에 합격한 인재들은 ‘왕이 묻고 선비가 답하는’ 책문의 과정을 거쳐 최종 등수를 하사받았다. 책문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33명의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국가의 정책과 부국방법, 사회도덕 등 결코 사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세종의 물음에 성삼문, 신숙주, 이석형이 각기 다른 세 개의 답변

을 제시한 것과 이후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나뉘어 가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이것들은 5백년 역사를 훑쩍 뛰어넘어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한학자에 의해 쉬운 한글로 옮긴 것이다. 저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절절한 시대상황과 감춰진 뒷이야기들을 덧붙여 의미 있는 읽을거리로 재창조해냈다. 지은이 김태완은 1964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철학과에서 유교선생의 책문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서 꾸준히 강의해왔지만, 지금은 배운 것을 사회에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고 있으며, 자연으로 돌아가 주경야독할 공리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중국철학우화」 「상수역학」 「도교」(이상 공역) 「중국문장가열전」 등이 있다.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대토론회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주 교육 문화회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경상북도 지회 주최로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진흥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만희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연합회 권용태 회장을 비롯한 이영철·김종기·고경재·조남식 부회장과 백상승 경주시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한 설석규 박사(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는 민간소장 유학관련 기록자료의 보존과 정리방안에 대해 기초조사 작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기록자료의 훼손과 멸실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경희 총장(가야대)의 '대가야 연구 「高天原」의 고지를 중심으로」에서는 공존공영의 가야정신을 예로 들기도 하였으며, 배만규 교수(경운대)는 '지역축제와 도시경

쟁력'이라는 논제로 우리나라 축제와 외국 의 축제를 예로 들면서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였다.

한편 김준식 안동문화원장, 박원재 박사(국

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최상호 고령문화원장, 신중환 대가야박물관장, 최현묵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지역특성화 문화발굴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

9월 20일(월) 오후 2시 창원시 교원공제회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부산 정연구, 울산 이두철, 경남 박현호)의 주최로 '지역특성화 문화발굴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해서 박완수 창원시장 등 유관기관 인사와 많은 문화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현호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남 지역과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발표에서 남재우 창원대 교수는 가야사의 중요성과 가야문화재의 현황을 짚어내었으며, 부산민학회 주경업 회장(서양화가)은 '조선 통신사' 논제하에 통신사를 통한 문화교류 등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통신사의 편성과 노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양명학 울산대 교수는 '처용문화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면서 울산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처용문화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는 박동백 경남문화재연구원장, 홍관표 김해문화원장, 백이성 부산 낙동문화

원장, 김문길 부산대 교수, 이상도 울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윤치원 마·창민에

총 문화정책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여했다.



문경문화원 · 문경예총, 학생문화예술대회 개최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과 문경예총(회장 손동원)은 10월 8일 문경시민문화회관과 중앙공원 등에서 학생문화예술대회를 열고 음악과 글짓기(산문, 운문) 미술(상화, 풍경화, 소묘, 카툰, 캐리커) 서예,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경연 및 경시대회를 펼쳤다. 10월 14일과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2004문경문화제가 열렸는데 경상감사 교인식과 도임행차 퍼레이드를 비롯해서 전통문화 행사에는 농악경연과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새끼꼬기와 전통도자기빚기 체험, 전통다례시연, 전통잡공예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움

지방문화분권과 문화주권의 확립

9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포 초원관 광호텔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전라남도지회(지회장 오웅갑)의 주최로 '지방문화분권과 문화주권의 확립'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조선대 이종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임재해 교수(안동대 박물관장)는 문화주권의 회복과 문화창조력이라는 논제로 '광주 전남 민중들이 진도사람들처럼 저마다 아리랑사설을 즉흥적으로 지어내어서 일상적으로 부를 수 있을 때 문화수도가 실현된다'고 하였으며, 제2주제(지역의 문화산업과 경제살리기)를 발표한 이흥재 한국문화

정보센터 소장은 문화산업 인력부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첨단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교육, 관계기관 정책담당자 소양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3주제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단체의 역할에서 고석규 목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는 참여정부가 그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문화분권과 문화주권의 확립을 위한 지방문화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편 강봉룡 목포대 교수와 정경진 나주문화원장 및 김정호 진도문화원장이 토론자로 각각 참여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장 회의

9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16개 시·도지회장회의가 열렸다. 각 시·도 사무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각 시·도지회간 업무협조 사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특히 정부 방침대로 독거노인과 청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등 세심한 부분들도 거론되었다.



제주도 함덕서 제4차 전국문화원 간사연수

지방문화원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 간사들에 대한 2004년도 연수교육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주도 함덕에 있는 동양썬라이즈리조트에서 전국 지방문화원 간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주도 양중해 지회장과 4개 문화원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문화원 핵심 실무자인 간사의 역할이 1인 3역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수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연수장소를 이곳 제주에서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짧은 일정이지만 소기의 교육성과를 기대하면서 탐라문화권 탐방을 비롯해서 상호 정보교류와 우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문화관광부 윤원중 과장(전통지역

문화과)의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정동극장 예술단 김만석 단장으로부터 '여성의 행복과 문화적 감성'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은 다음 문화원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분임토의시간을 가졌다.

이튿날부터는 삼양동 선사유적지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목관아, 제주자연사박물관, 신영박물관 등을 관람하는 탐라문화체험의 강행군이 이어졌다.



제5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종기)는 9월 16일 오전 10시 용인시실내체육관에서 제5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열고 관내 시·군을 대표하여 출전한 27개 팀이 자기 고장의 풍물과 농악 등 다채로운 민속공연으로 많은 관중들의 흥을 돋구었다.

이틀에 걸쳐 펼쳐진 민속예술제에서 포천시 메나리농악놀이팀이 영예의 대상을,

그리고 광주시 광지원농악팀이 최우수상을, 양평군 남사당놀이 6마당중 4마당과 광명시 이방리줄다리기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동작문화원, 사육신예술문화제



서울 동작문화원(원장 연만희)에서는 10월 8일 저녁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사육신예술문화제를 열고 사육신의 선비정신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조명, 충·효사상을 전파하고 이 지역의 대표문화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지역 문화가족들과 즐거운 공연시간을 마련했다.

이수홍 고문, 김우중 동작구청장에 효령대상 수여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 고문(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은 10월 2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제7회 효령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평생을 일관되게 나라와 사회의 공동선과 보편적 인간애를 구현하는데 힘써 온 효령대군의 뜻을 기리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효령대상은 현대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정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문화·사회봉사·효도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들에게 사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현재)의 최종 심사를 거쳐 단체상을 포함 네 분에게 주어지는 대상이다.

수상자로는 김영모 중앙대 명예교수(문화부문)와 이경식(자승)스님(사회봉사부문), 김우중 동작구청장(효도부문), 그리고 사회단체인 대전효도회(회장 황인화)가 관계 인사와 수상자 가족 친지, 효령대군파 종친들의 박수를 받으며 영예의 수상을 안았다.



효행상 받은 동작구청장

이수홍 청권사 이사장(전국문화원연합회 고문)이 김우중 동작구청장에게 효령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장 4명 정부 문화훈장 서훈

문화관광부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정동극장에서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서훈식을 가졌다.

정석진 원장(평창) - 옥관문화훈장



평창문화원 정석진 원장이 평창아리랑의 체계를 구축 아리랑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소리 찾기에 이바지하였으며, 각종 강좌, 출판, 지

역문화단체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으로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최용문 원장(속초) - 화관문화훈장



속초문화원 최용문 원장이 향토사, 향토민속, 문화 제현상 분석 및 보존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문화 선

도를 수행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윤수옥 원장(장흥) - 화관문화훈장



장흥문화원 윤수옥 원장이 장흥문화동호인회 창립을 통한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도모 및 문화유적지 순방을 통해 문화사랑의 참뜻

을 전파하고,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으로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신정교 원장(금산) - 화관문화훈장



금산문화원 신정교 원장이 금산인삼축제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육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

한데다 전통 민속 문화 발굴 및 육성을 통한 향토문화 발전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인턴직원 이대군 씨 정식 임용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0월 1일 학업(대학원)관계로 사직한 이동아 행정서기 후임에 인턴직원 이대군(李大君 25)씨를 신규 임용했다.

육보근 원장(용산문화원) 별세

육보근(陸寶根 68세) 용산문화원장이 9월 22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해 오던 중 유명을 달리 하였다.

고인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대림섬유 대표이사과 용산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1년 1월부터 용산문화원장으로 문화사업에 헌신해 왔다.

이두철 울주문화원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지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두철(李斗哲) 울주문화원장이 지난 8월 24일 울산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삼창기업주식회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울산부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해남문화원장 김용호 씨 취임

해남문화원은 6월 18일 정기총회에서 김용호(金龍鎬 58) 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선임하였다.

김 원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라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여년간 문화원 이사를 거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탁구협회 전라남도협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전임 황도훈 원장은 향토사를 비롯하여 해남문화 발전을 위해 상임고문을로 헌신하고 있다.

장수문화원장 고두영 씨 취임

장수문화원은 8월 30일 임시총회에서 2명이 입후보하여 경선한 결과 80%의 득표를 한 고두영(高斗永 75)씨가 압도적으로 선임되었다.

었다.

9월 3일 오전 10시 장수농협회의실에서 관내 유관 기관장 및 300여명의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고 원장은 경남대를 졸업하고 40여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해 오는 등 교육사업에 헌신해 왔다.

군위문화원장 박수호 씨 취임

군위문화원은 8월 20일 오전 10시 문화원 강당에서 많은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신임 박수호(朴 64)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을 가졌다.

전국 문화원 새로운 얼굴

지난 4월 20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바 있는 신임 박 원장은 군위를 졸업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군위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과 라이온스클럽 군위지역회장 및 군위군제2건국추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원장은 향토사 연구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오고 있다.

강원 고성문화원장 황연인 씨 선임

고성문화원은 6월 29일 원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3명이 입후보하여 경선을 통해 73%를 득표한 황연인(黃鍊仁 66)씨가

신임 원장에 당선되어 지난 6월 29일 오전 11시 고성문화의 집에서 유관 기관장 및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황 원장은 고성 동광농고를 졸업하고 태백시 관광국장과 강릉문화예술관장을 거쳐 최근에는 고성군·양양군 부군수에 재직하는 바 있는 직업관료 출신이다.

인천 남동문화원장 이정박 씨 선임

8월 20일 오후 5시에 개원식을 가진 인천 남동문화원은 지난 7월 7일 발기인대회에서 초대 원장으로 이정박(61)씨를 만장일

치로 선임하였다.

이 원장은 서라벌에대 서양학과를 수료하고 동아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계와 서인물산 대표를 거쳐 현재는 인천 남동구 문화예술회 회장과 한국미협 회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비롯 미협전, 초대전 등 많은 작품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의성문화원장 김종우 씨 재추대

의성문화원은 8월 24일 오전 10시 의성군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김종우(金宗佑 62) 원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다.

동다문화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남해문화원장 이호균 씨 선임

남해문화원은 7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이호균(李浩鈞 58)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선임했다.

9월 1일 오전 11시 남해문화체육센터에서 많은 문화가족과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진 이 원장은 남해농고를 졸업하고 청소년 선도를 비롯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1년부터 남해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반세기 동안 ‘천안문화 지킴이’로

천안삼거리는 삼남대로가 영남과 호남길로 분기하는 기점이다. 한 길은 남안들 고개를 넘어 청주, 문경, 대구로 통하는 길이고, 또 한 길은 도리터 고개를 넘어 공주, 강경, 전주로 통하는 길이다. 길이 세갈래로 갈라졌다 하여 삼거리라고 했는데 후에는 동네 이름까지 삼거리라 불렀다.

천안삼거리는 약속된 사람끼리 만나는 상봉의 거리요 우연히 만나는 해후의 거리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해 놓은 이치라 이별의 거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삼거리에는 관원도 머무르고 선비도 쉬어가며 농군도 한잔하고 장사치도 목을 축이는 그야말로 양반과 상인이 어울려 즐기던 곳이었다. (<천안삼거리 농소전>(민병달 저))

천안삼거리의 유래를 따라가다보면 천안지역이 예로부터 얼마나 중요한 명소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소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화원 중의 하나인 곳이 천안문화원이다.

54년 각급기관장 모임 ‘화요회’에서 출발

천안문화원의 밑알은 1954년 7월 10일 싹트었다. 천안의 각급 기관장 모임인 ‘화요회’에서 지역에도 문화의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토문화연구소를 병합,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천안시 문화동 78번지에 문을 열었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천안문화원은 각 시대별로 적절한 기능들을 수행했다.

50년대 문화원은 전후 지역의 유일한 문화 공간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했다. 변사가 등장하는 무성영화를 상영,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람했다. 문화원 내에는 방송실을 설치, 천안 지역 공지 사항과 통금사이렌, 미아 찾기 등 시정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방송국 역할을 맡기도 했다.

60년대에는 ‘시민위안의 밤’을 운영, 분기별로 각종 예술제를 개최했다. 70년대 말부터는 노인대학을 개설했고 87년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로 ‘제1회 천안삼거리문화제’를 주관했다.



• 천안문화원의 현재 모습

역대 원장들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문화원은 90년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92년 5월 전국 최초로 문화부 선정 문화학교로 지정됐고 92년 9월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700평으로 문화원을 신축, 성정동 시대를 개막했다. 94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기초한 특별법인으로 형태를 바꿨다.

97년 9월에는 지역 내 크고 작은 향토사 자료들을 수집해 원내에 30여평의 '천안향토사료관'을 개관했다. 이런 노력으로 99년 천안문화원은 전국문화기반 시설 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됐다. 2000년 2월에는 생활 속 문화체험공간으로 120평의 '천안문화의 집'도 조성했다.

문예정보지 '천안문화' 38호 제작

천안문화원은 지난 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기초한 특별법인으로 거듭 태어나 새로운 시대 속의 문화원 활성화를

제창,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2년 성정동 694-9번지에 새로운 스타일의 신청사를 이루어냈으며, 격이 있는 문화원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천안문화원은 연중 각종 전시활동과 음악회, 발표회 등 사회교육의 전당으로 계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생활강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정보의 안내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정보 활동에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문예정보지 '천안문화'는 지금까지 38호가 발행됐고 천안 지역의 문화유적, 인물사, 지명사, 민담, 민속, 민요, 축제 등 여러 분야의 향토문화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22권의 향토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천안지역의 문화와 역사들을 보존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그 동안 발굴된 모든 향토사 자료들을 한데 묶어 '천

안향토사 대관'을 펴낸 바 있으며, 지방화시대 천안의 이미지를 높여가고자 천안 문화재를 총망라한 칼러도록과 천안인의 한마다 축제인 삼거리 문화제 등 '축제 발전방향'을 특집으로 펴냈고, '조선왕조실록 속의 천안 이야기'와 '간추린 향토문화'를 발간, 각계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문화학교 운영과 예술강좌 특히 합창, 수채화, 기타, 향토사, 한문, 사진, 영상음악, 영화강좌, 꽃꽂이, 시청각교실 등이 요일별로 열리고, 청소년음악경연대회, 영화제, 영상음악회, 글짓기·사생대회, 글짓기 교실 등은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다.

가려는 의지속에서 천안정신, 천안사랑 운동을 수행키 위해 '향토사연구소'를 부설 운영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으며, 천안의 향토사자료를 총망라하는 문헌과 유물들을 발굴 보존하기 위해 30여명의 '향토사료관'을 설치, 운영중에 있다.

시민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사랑문화가족, 여성합창단 '레이디싱어즈', 한마음 실내악단, 고전문화연구회, 청소년오케스트라 등 현재 14개 서클, 500여명의 시민이 분야별 모임을 통해 문화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새로운 영상정보센터인 '문화의 집'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 천안문화원의 초창기 모습

4년 연속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

지역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이끌기 위한 문화강좌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교육차원에서 품위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학교를 1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천안의 향토적인 부가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천안홍타령 축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민화합의 대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천안역 구내에 '문화사랑'을 설치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천안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시대 가장 절실한 문화적 요구인 우리 것을 찾고 이어

있다.

천안은 충남 대표도시로서 중부권의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천안의 종합문화센터인 천안문화원은 4년 연속 전국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된 내공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효율적인 문화공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취재 _ 김준호 기자

문화원은 기획, 천안시는 예산지원 이것이 문화원과 시의 올바른 관계 아닌가?

- 천안문화원은 어떤 배경에서 태동했는가.

천안지역의 유지와 엘리트가 중심이 돼 민간주도로 순수하게 설립됐다. 초기부터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서 다른 문화원을 선도해 나갔는데 특히 천안지역의 역대 시장들이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경영활동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고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 문화원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



- 문화원에서 주력하는 활동은.

역사와 향토사 발굴에 주력하던 천안문화원은 지난 96년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차원 높은 연구물을 만들어 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4~5개의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 문화원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천안문화원에는 6명의 유급직원이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인원 부족을 '기획력'으로 보충하고 있다. 지난 천안지역의 한 축제에서는 문화원 주도로 기획을 주로 하고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패턴이 문화원과 시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아닌가 생각했다.

- 천안문화원장을 맡기까지의 과정은.

천안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40년 동안 교육계에서 일을 해왔다. 교육위원회에서 재직하며 문화원 이사직을 하는 등 문화원과 인연을 맺어오다가 원장을 맡게됐다. 천안지역에서 교직을 하다보니 이 고장에 대한 애정이 강해졌고 이런 마음이 문화원장을 맡는데에 큰 동력이 됐다.

- 앞으로 천안문화원의 과제는.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틀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원을 보다 나은 내용과 공간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간 확충과 예산 증액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인구 25만명 때 신축한 지금의 문화원 공간으로서는 인구 50만명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각종 여건을 개선해 천안지역의 문화 중심 센터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티없이 맑게 트인 드높은 하늘을 따라 훨훨 날고픈 이 가을.
복닥거리는 소음과 여유라곤 없는 도시생활을 잠시 뒤로하고,
시골 고향집 너른 마당가에 빨갭게 익어가는 고추와
싸리울타리에 축 늘어진 누런 호박을 떠올리며,
가을철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송이버섯을 찾아
토종 웰빙투어를 떠나본다.

“꼭꼭 숨어라 송이버섯꾼 보인다”

경북 봉화 산마루에 울려 퍼지는 자연의 합창

송이버섯 따는 일은 보물찾기와도 같아

누렇게 여물어 가는 벼이삭이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이제나 저제나 갈 무리 만을 기다리는 시월 무렵. 그러니까 꼭 추석을 앞뒤로 한 달쯤이다. 이맘때가 되면 강원도 양양군이나 경상도 봉화군의 산간마을 사람들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바빠진다. 가을걷이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추수는 뒷전이다. 꼭 이때쯤 그 유명한 송이버섯이 나기 때문이다.

송이버섯철이 되면, 이곳 사람들은 새벽 어스름이 채 걷히기도 전에 집을 나선다. 일찌감치 산에 오르기 위함이다. 제법 써늘해진 새벽공기에 저절로 자라목이 되지만, 발걸음만은 재게 놀린다. 산길로 접어들면, 밤새 내린 이슬 무게를 이기지 못해 풀잎은 잔뜩 늘어져 있다. 길다란 나무 꼬챙이를 이리저리 까불려, 풀숲의 물기를 털어 내면 서도 발걸음은 더욱 빨라진다. 한참을 그렇게 종종걸음 칠라치면 목덜미가 흥건해진다. 새벽은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고 발걸음은 어느새 산등성이에서 멈춘다.

산마루에는 산막이 있다. 산막은 마치 초소 마냥 산 아래를 두루 살필 수 있는 곳에 짓





는다. 산막은 과수원의 원두막과 같은 격이다. 비닐로 열기설기 엮은 뒤 그 위에 솔가지를 얹어, 그저 비나 피하고 한숨 피로를 풀 공간이면 된다.

새벽이나 밤으로는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준다. 그러나 송이버섯 철 한 달 동안 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간혹 있을지도 모를 ‘밤손님’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튼튼한 산막을 짓거나 야외용 천막을 친다. 취사시설도 만들어 둔다.

담배 한 대 맛나게 필 참이면, 아침 햇살이 목덜미를 간지럽힌다. 이슬도 웬만큼 건헸다. 한숨 돌리고는 슬슬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식전에 산을 한바퀴 둘러봐야 한다. 아직 어린 늬은 놚두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서 판다. 두어 시간만에 산막에 돌아와 집에서 싸온 늦은 아침을 먹는다. 송이버섯 손질을 하면서 한동안 쉬다가 산을 한바퀴 더 돈다. 하루에 두어 번은 돌아 다녀야 한다. 산 속에서 송이버섯 따는 일은 보물찾기와도 같다. 방금 지나친 곳도 두 번 세 번 살펴보면, 송이버섯이 흙 속에서 불쑥하니 돌아나 있을 수 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길거리에 사람 왕래가 뜸해지면 그제서야 산에서 내려온다.

송이버섯꾼들은 송이버섯을 따는 한 달 동안 서너 자 길이의 나무 꼬챙이를 늘 들고 다닌다. 송이버섯을 따는 도구이다. 꼬챙이는 풀숲을 헤쳐 송이버섯을 살피는 데 좋고, 뱀을 만나도 멀리 보낼 수 있으며, 지팡이 노릇도 하여 요긴하다. 곧게 자란 참나무나 단풍나무면 좋고, 그저 굽기가 손안에 마춤하게 쥐어지면 그만이다. 남자들은 꼬챙이 대신 낫을 들고 다니기도 한다.

‘송이버섯 나는 곳은 딸에게도 비밀’

재밌는 것은, 송이버섯은 매년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난다. 물론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송이버섯 나는 곳은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속담도 그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송이버섯이 해마다 나던 자리에서 어김없이 나는 것은 아니다. 송이버섯이 흥년인 해는, 매년 나던 자리에서도 거르는 경우가 많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해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송이버섯꾼들은 산속을 이잡듯이 뒤져야 한다.

도둑이 들더라도 그 산의 송이버섯이 어디쯤 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헛일이다. 때문에 송이버섯을 훔치는 도둑들은 대개 그 산 어느 자락에서 송이버섯이 나는지 훤히 꿰뚫고 있다.

송이산 들머리에는 예외없이 붉은 색 노끈으로 ‘막음줄’이 쳐져 있다. ‘이곳부터는 입자가 있는 송이버섯 산이니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표시이다. 그렇다고 송이버섯이 나는 지역의 모든 산에 막음줄이 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송이버섯이 나는 산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산은 다른 산에 비해 값도 천장부지이다.

송이버섯 날 때 처음에는 땅속에서 봉긋하니 흙을 들어올린다. 이 때는 전문 송이버섯꾼이 아니면 버섯이 있는지조차 짐작도 못한다. 흙더미를 슬쩍 건어보면 손톱 크기만 하게 보이는 뽕얀 송이버섯이 보인다. 다시 흙을 잘 덮어줘야 한다. 아니면 말라버리거나 성장을 멈춰버릴 수도 있다.

이 상태로 사나흘 지나면 얼굴을 살짝 내미는데, 솔 이파리를 잔뜩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 그 후 갓(머리부분)을 붙쑥 내민다. 이때가 최상품으로 값이 나가는 때다. 송이버섯 밑둥이 다치지 않도록 꼬챙이를 이용해 흙과 함께 조심스레 들어 올려 따야 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송이버섯의 갓이 활짝 피는데, 값이 없을 뿐더러 육질이 질겨 맛도 덜하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지만, 송이버섯의 크기를 키우면서도 갓이 피는 것을 막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갓에 씌워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송이버섯은 전문 송이꾼도 구분할 재간은 없다. 다만 질기고 맛이 떨어진다.

송이버섯의 등급은 대략 다섯가지. 1등급은 길이가 8cm 이상으로 굵기가 고르고 반드시 갓이 퍼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육질이 단단하면서 무게가 나가고, 흰색과 연갈색을 띤 것을 제일로 친다. 2등급은 6~8cm이거나 갓이 3분의 1쯤 퍼진 것이고, 3등급은 크기가 작거나 갓이 퍼진 것이다. 등외품은 벌레가 먹었거나 부러진 것 등이다.

그런데 송이버섯은 토질 등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나더라도 색깔이나 생김새, 크기가 다르다. 어느 산에서는 땅속에서 주로 성장하여 크기가 커도 갓이 퍼지 않은 반면, 또 어느 곳에서는 땅위에 갓을 내밀고 성장하여 크기는 작아도 갓이 핀 송이버섯이 있다.

60~70년대 이후 수출로 ‘인기몰이’

송이버섯의 성장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시기 온도가 23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소나무 부근이어야 하고 낙엽도 적당하게 있어, 온도와 습도가 알맞아야 한다. 여름에 가물면 송이버섯이 흥년이기 쉽상이고, 또 송이철에 가물면 송이

버섯 나는 기간이 짧아지기도 한다.

‘일송이 이능이 삼표고’ 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송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향도 좋고 맛도 좋아 버섯 가운데 최고로 친다. 그러나 정말이지 송이버섯은 값은 너무 비싸다. 소매가격이 1kg에 30~40만원(1등급)은 보통이다. 지난해엔 한때 70만원까지 나가기도 했다. 그토록 비싼 이유가, 귀하기도 하겠지만 송이버섯은 아직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여러해 동안 시험재배가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송이버섯을 좋아하는 일본에서도 15년 넘게 송이를 시험재배 했지만 거듭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전에는 송이버섯이 크게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작해야 새끼에 줄 줄이 한 두름씩 엮어 오일장에 내갔을 뿐이다. 팔리면 간고등어라도 바뀌오고 그렇지 않으면 된장독에 깊숙이 박아 장아찌를 만들어 먹곤 했다.

그러던 송이버섯이 60~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전량 수출되면서 급기야는 논밭 소득을 능가하는 귀하신 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은 중국산보다 향과 육질이 좋아 일본에서 인기가 좋다. 일본도 교토 주변에 송이버섯이 나고는 있지만 2차대전 이후 상당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자연과 상생할때 ‘웰빙’

요즘 건강하게 잘먹고 잘살자는 웰빙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well) 인생(being)을 살자는 의미. 그러나 요즘의 웰빙의 문화적 풍경을 들여다 보면 개인의 물질적 풍요만 강조한다거나, 대중적 소비와 상업주의가 교묘하게 연계되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과의 상생을 통해 더불어 사는, 웰빙의 바른 정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웰빙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전한 문화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생명력을 거스르지 않는 삶속에서 웰빙을 실천해 왔다.

옛시조에 “십 년을 경영하야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나 간 달 간에 청풍간 맛져두고/강산은 드릴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했다. 10년동안의 살림살이로 초가집 세칸을 마련하고 그 자리마저 자

연에게 돌려주는 넉넉함과 여유로운 생활 모습이 웰빙의 진면목이 아닌가 한다.

웰빙의 근원은 보헤미안의 정신세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5세기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집시들이 많았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정신적 흐름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미국의 상류층을 일컫는 보보스(Bobos)에 반영되었다. 보보스는 자본주의의 풍요를 상징하는 부르주아(Bourgeois)의 앞글자과 집시들의 정신적 자유를 상징하는 보헤미안(Bohemian)의 앞글자의 합성어이다. 웰빙족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에 관계없이 성장을 거듭하는 분야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웰빙바람을 타고 있는 유기농 식품이다. 백화점마다 유기농

코너가 생겼고, 유기농 유통업체도 여럿 생겼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살림’. 웰빙에 대한 인식도 없던 1986년부터 올바른 먹거리를 주창하며 만들어진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 현재 9만여명의 조합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은 농촌이 가진 장점을 살려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의도로 지난 7월 웰빙팀 부서를 설치했다. 그 첫사업으로 10월 9일 악양면 평사리에서 제1회 평사리 황금들판 축제를 개최했다. 웰빙강의를 하는 대학교도 있다. 중앙대의 ‘내마음 바로보기’라는 강의를 개설, 충남 마곡사의 스님을 초빙하여 한달간 정규수업을 한후, 마곡사로 2박3일간 산사체험을 떠난다. 아주대의 ‘단학의 원리와 실습’도 단전호흡이나 기체조 등 단학의 원리를 체험하고 그 수련법을 습득하는과정이다.

송이버섯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많이 난다. 강원도 양양, 고성, 인제, 삼척, 강릉 등지와 경상북도 봉화, 울진, 영주 그리고 경상남도 거창, 충북, 제천과 전라북도의 남원이 주산지이다. 그밖에도 소출량은 적어도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난다. 시월이면 송이버섯이 나는 지역에서 송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강원도 양양군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금년까지 8년째 축제를 했으며,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는 3년째 송이축제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최대의 송이버섯 생산지인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요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도송이 하나라도 날개포장을 한다. 그런데 송이버섯은 아직도 유통방식이 예전 그대로다. 송이버섯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에 의해 채취할 때와는 다른 검은색으로 변해 볼품이 없어진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송이버섯의 색깔이 거무티한 것으로 알겠지만 원래는 희고 연한 갈색을 띠고 있어 훨씬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다. 또 버섯 자체보다 오히려 뿌리부분에 붙어있는 흙에서 더 진한 향이 난다. 생각컨데 송이버섯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뿌리부분의 흙을 유지한 채 날개포장을 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생산지나 채취자의 소재지를 밝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 _ 전명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육로로 다녀온 1日 금강산 기행



• 상팔담 표지석 앞에서 서대문구청 문화담당 공무원과 포즈를 취한 서대문문화원 정록수 과장(오른쪽).

서대문 문화원 회원들이 육로를 통해 금강산에 다녀왔다. 서대문 문화원은 지난 9월 10일 하루 일정으로 금강산을 탐방하고 밤 8시경 돌아왔다. 김환옥 서대문 문화원장과 신임 한상률 사무국장, 정록수 과장, 김영선 간사를 비롯한 40여명의 문화가족들은 먼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6시 30분 경 눈을 비비며 강원도 고성 금강산 콘도를 출발해 상팔담과 구룡폭포를 탐방하고 저녁 7시경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서대문 문화원 정록수 과장(사진 오른쪽)에게 탐방내용과 소감을 물어봤다.

Q. 금강산에 가는데 얼마 들었나요?

A. 회원들이 자비를 털어 갔는데 1인당 9만9천원이 들었습니다.

Q. 북한의 금강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가요?

A. 새벽 6시 30분에 출발해 9시 40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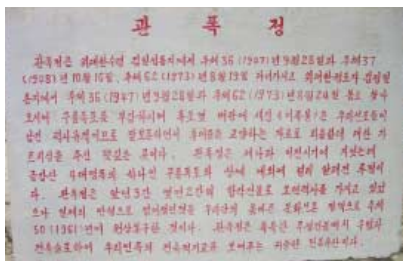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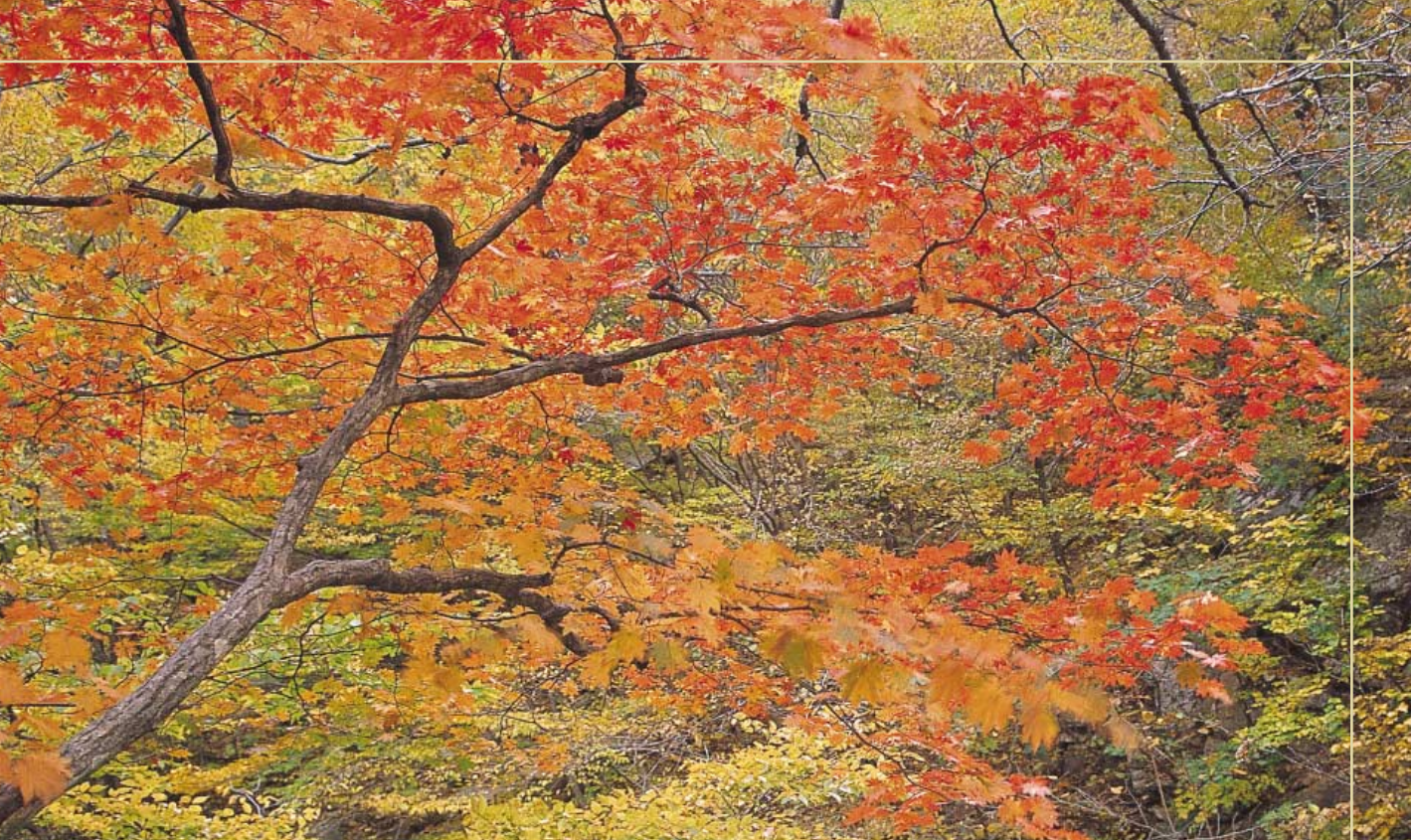
금강산 입구에 도착했으니 약 3시간 걸린 셈이에요. 하지만 실상 중간에 신원화인등 통행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가까운 거리예요. 통행절차가 없다면 1시간이면 족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데 새삼 놀랐습니다.

Q. 등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상팔담으로 올라가는데 바위들이 가파른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철사다리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 사다리 계단이 1000개가 넘어요. 그래도 문화가족들은 모처럼 찾은 금강산을 오른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잊는 표정이었습니다.

Q. 북한의 음식이나 온천은 좀 즐겨셨나요?

A. 북한이 운영하는 옥란관에서 비빔밥과 녹두지짐등 향토음식을 맛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더라구요. (우리가 남한의 '가공' 음식에 길들여 있어서 아직 북



▲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헤치고 있는 붉은 글씨들

한의 '자연' 음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온천욕은 참 좋았습니다.

Q. 금강산 탐방중 인상에 남는 것이 있었다면?

A. 이미 알려진 것 처럼 등반로를 따라

가다 보면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들이 바위에 새겨져 있어서 미관상으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정각에서 구룡연 입구까지 가는 비포장도로 옆 창터솔밭길에 서 있는 미인송, 일명 황장목은 남한의 경복궁 재건때 사용된 나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Q. 나중에 금강산을 탐방할 다른 문화원 가족들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

A. 출발 시간이 이르다 보니 전날 밤을 고성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나 렌즈가 튀어 나온 카메라는 소지 못하도록 하므로 참고하십시오. 금강산 탐방을 원하는 문화가족들에게는 해상보다는 육로가 남북 분단의 현실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어 권하고 싶습니다.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온 가족이 가볼만한

가을낙엽을 밟으며 쓸쓸해진 풍경과 아름다운 공간 속에 묻혀 잠시 지나가는 세월을 가슴 한 켠에 담아두고 싶다면 미술관 옆 조각공원 산책길을 걸어보자. 요즘 거울을 통해 본 나의 얼굴에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가 문득문득 잔잔한 미소가 되기도 하고, 애잔한 그리움이 되기도 하여 어른거리다가 마음까지 번져나가 마음을 텅 비게 만든다면 미술관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아름다운 색들을 마음에 물들이고 청자 그 푸른빛을 가슴에 담아보자. 미술관 구석구석에 놓인 조각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이미지와 언어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보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가을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당장 그렇지만 느린 걸음으로 미술관을 찾아가보자.

취재 _ 지호진 기자

미술관

경인미술관

문화의 거리라 불리는 인사동의 한 복판에 있는 경인미술관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도심 속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더 익숙하다. 도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전통한옥을 찾은 듯한 느낌으로 마음을 편하게 이끄는 곳이다. 특히 미술관 내에 있는 전통찻집 다원은 전통한옥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인사동의 명소.

전시관은 모두 3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전시관은 경인미술관의 가장 넓은 전시공간이며, 제2전시관은 자연채광을 이용한 전면이 유리로 된 유리전시실로 특히 입체적인 작품을 감상하기에 좋다. 한옥 건물인 제3전시실은 특히 한국화나 전통공예 전시에 어울리는 공간.

이 밖에 아늑한 분위기에 편하게 조각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전시장과 야외무대는 경인미술관이 추구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꾸며내는 경인미술관은 딱딱한 전시 공간이 아닌 인사동에서 쉬어갈 만한 다정스럽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다.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0-1
- 전화 | 02-733-4448~9
- 관람요금 | 1전시실은 전시에 따라 변동(야외전시실은 무료)

성곡미술관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마음을 편하게 열고 심호흡을 길게 내뿔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바로 성곡미술관이다. 광화문 서울역사박물관과 구세군회관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오래된 저택들과 소규모빌딩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축구협회 못 미처 성곡미술관 정문이 등장한다.

정문을 들어서면 주차장과 전시관 건물이 그리고 주차장 뒤로는 계절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숲과 오솔길을 품은 조각공원이 있다. 국내외 유명작가의 조각품과 도심 속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계절 풍경은 서울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공간이다. 또한 조각공원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은 안에서는 따사로운 온기를 느끼며 밖 테라스에서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조각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미술관의 야외 공간이 너무나도 고요해 도심 속 사색의 장소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1
- 전화 | 02-737-7650
- 개관시간 | 오전 10시~오후6시(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요금 | 일반 3,000원 / 초·중·고생 2,000원

가나아트센터

북한산 자락 평창동에는 크고 화려하게 지은 저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문화 공간 가나아트센터도 있다.

가나아트센터는 미술과 건축, 고전과 현대미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가나아트센터의 건물과 공간구성은 세계적인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하였는데 독일의 건축전문기관인 타슈(Tasche)는 이 건물을 2000년 밀레니엄 건물로 선정된 바 있다.



2개층 3개의 주전시장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은 고전 건축에 주로 사용하였던 중정을 도입한 건축물로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이며, 3백석에 달하는 관람석과 최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야외공연장은 미술 이외에도 클래식과 대중음악 공연, 명사 초청강연, 마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가나아트센터의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레스토랑과 다양한 휴게시설, 그리고 아트샵을 갖추고 있어 관람객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며 공예전문전시공간인 공예관과 한국의 옛 가구와 소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옛 생활 전시 공간도 있다.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97번지 • 전화 | 02-720-1020

제비울미술관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즐거운 미술관이 경기도 과천 청계산 기슭에 있는 마을, 맑은 공기 푸른 자연 속 제비울 마을에 세워진 제비울미술관이다.

9000여 평의 공간에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대적인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700여 평의 건평에 2개 층에 걸쳐 총 3개의 전시실이 열려 있으며, 전시실 뿐 아니라 각종 시청각교육과 영화 관람을 위한 첨단 미디어 시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각종 그림책을 갖춘 도서관, 야외 자연 학습시설과 다양한 공연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야외 공연장등이 들어서 있다. 또 관악산과 청계산 인근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좋은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마련한 것은 이 미술관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미술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



• 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38-1 • 전화 | 02-3679-0011
• 개관시간 | 오전 10시 30 ~ 오후6시(동계/오후5시) • 관람요금 | 무료

로댕갤러리

사는 게 시시하고 지루해 열정과 감동의 물결에 휩싸이고 싶다면, 고뇌에 찬 인간의 모습을 통해 생생한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싶다면 로댕을 만나러 가자. 로댕의 조각 작품을 보러 가자. 로댕갤러리로. 프랑스가 아니라 서울 남대문로로 가면 된다.

남대문에서 시청으로 향하는 남대문로 삼성 본사 건물 옆 삼성생명 1층이 바로 로댕갤러리로 혼탁한 도심 속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로댕의 예술혼이 담긴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미술관이자 문화 휴식 공간이다. 1999년 5월 14일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우리나라에 문을 연 로댕갤러리는 ‘신의 손을 가진 인간’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오귀스트 르네 로댕의 전문 갤러리로, 로댕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 전체가 반투명 유리로 마감된 상설전시장 글래스 파빌리온에서는 로댕의 대표작 <지옥의 문>과 <갈레의 시민>을 자연광 아래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으며, 이어지는 기획전시실에서는 로댕 관련 전시 이외에도, 근·현대 미술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를 만나 볼 수 있다.

- 위치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삼성생명1층) • 전화 | 02-2259-7781
- 개관시간 | 오전 10시~ 오후6시(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요금 | 전시에 따라 변동



리움미술관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지향하며 10월 13일 8년 동안의 긴 준비 작업 끝에 한남동에 문을 연 삼성미술관 Leeum은 한국의 전통미술과 한국과 국제 근현대미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또한 세계 건축계를 대표하는 마리오 보타와 장 누벨이 디자인한 MUSEUM 1, MUSEUM 2는 같은 단지 안에 위치한 램 쿨하스의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와 함께 그 자체로 예술적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미술관의 건축 뿐 아니라 전시물들도 가히 한국을 대표할만 하다.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 선보였던 고미술품을 옮겨온 뮤지엄1은 청자(4층), 분청사기(3층), 고서화(2층), 불교미술·금속공예(1층)로 나뉘어 국보 25점과 보물 35점 등 115점을 상설 전시하며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국보 133호), ‘청화백자 매죽문호’(219호), 정선의 인왕제색도’(216호) 등이 대표작이다. 뮤지엄2에서는 191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미술과 2차대전 이후 서구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들로 전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핵심을 이루는 이중섭 박수근을 비롯 이상범 변관식 김환기 백남준 이우환, 그리고 이불 같은 젊은 작가 작품까지 포괄한다. 전후 추상미술사조를 이끈 마크 로스코, 프랭크 스텔라 등의 대표작과 요셉 보이스, 앤디 워홀도 소개한다.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18 • 전화 | 02-2014-6901 • 개관시간 | 오전 11시~ 오후4시(휴관일 : 매주 일요일, 월요일)
- 관람요금 | 상설전(MUSEUM1 MUSEUM2) 일반/ 5,000원 초·중·고생/3,000원
미술작품과 떠나는 시간 여행 일반/ 5,000원 초·중·고생/3,000원



New Books



서울문화가
한 눈에
보이는 책

1000원으로 시작하는 서울 역사 문화 여행 | 황금부영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서울의 역사 문화 공간을 새롭게 소개한 책. 저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며 사진과 함께 관람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다.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 낯선 여행자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하철 노선과 함께 변경된 서울시내 버스 노선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초중고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현장학습을 다닐 때 좋은 참고서가 될만하다.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경복궁을 시작으로 궁궐과 종묘사직, 성문을 소개했으며, 2장과 3장은 사대문 안 역사문화 공간과 사대문 밖 역사문화 공간을 안내해 준다. 3장에서는 능, 원, 묘 및 사당을 둘러보았고, 마지막 5장은 박물관 및 기념관을 담았다. 서울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틀 맵 서울 문화 그림 지도'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은이 본명은 최병윤인데 '물처럼 깊고 넓게 흐르라는 뜻'과 '구르는 돌처럼 모나지 않고 둥글게 빛나라'는 뜻으로 윤돌이란 필명을 쓴다.

아이들을 위한
역사만화로
'짱'



만화 <장길산> | 애니북스

황석영의 역사 대하소설 『장길산』을 원작으로 한 올컬러 교양만화. 시각적으로 친숙한 SD캐릭터를 도입하고,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통해 '민중혁명기' 장길산을 부각시켰다.

이야기는 조선효종때 계집종의 몸에서 태어난 장길산이 민초를 괴롭히던 간상배 신복동을 징벌하려다 사형수가 되지만 박대근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한 후 금강산에서 운부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의적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의지를 키워 나가는 과정,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녹림당을 조직, 지배 계층에 대항하는 모습, 그러한 개인적 실천력이 민중에게로 확대되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전개된다.

이번에 출간된 만화 '장길산'은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하면서 재미를 놓치지 않았다. '장길산'에 관한 책은 한국일보에서 연재가 끝난 후 여러차례 소설로 출간됐고 본문을 축약해 삽화를 곁들인 '청소년을 위한 장길산'도 출간됐지만 정작 만화로 돼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장길산'이 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중에 의한 사회개혁'이라는 주제를 어린이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하다는 점과 스케일이 큰 대하드라마라는 점 때문이었다. 예전에도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백성민 작가의 만화 '장길산'이 있었지만 소구대상이 성인층였던데다 현재는 절판된 실정이다. 앞으로 20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현재 2권째 발간.

우리 문화 길라잡이 | 학교재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대표적인 어휘들을 엄선해 알기 쉽게 설명한 문화 용어 사전. 그동안 우리 전통 문화에 관한 전문서들이 분야별로 다수 나왔지만 일반인을 위한 전통문화 용어집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문화의 진면목을 만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이 책은 사진과 함께 읽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233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음식·복식·주생활·세시풍속·민속신앙·문학·음악·미술·춤·놀이·무예·특산물·상징 등 13개 분야로 분류한 후 그 어휘의 기본 정의, 특징, 유래, 역사, 관련 설화, 어원, 속담 등을 간결하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고 되도록 쉬운 용어로 풀어써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읽어도 될 만큼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각 어휘마다 거의 1컷 이상 그 어휘와 관련된 옛 그림이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말을 연구하는 단체인 국어연구원의 학예연구사들이 집필했다.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비롯하여 청소년, 외국인, 해외 교포 들에게까지 폭넓게 읽힐 생각으로 영문판(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Culture: 233 traditional key words)도 나왔다



우리문화 대표
233가지
총망라

의령실록(宜寧實錄) | 의령문화원

의령문화원(원장 허백영)에서는 조선왕조실록중 의령관련 부분만 발췌 정리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의령실록'을 펴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 유산중의 하나로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선조들의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변천해온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계 태조대왕 이후 25대 철종대왕까지 472년간의 생생한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자료집으로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의령문화원에서는 그동안 허원장의 헌신적인 꾸준한 노력으로 「조선환여승람」 「충효열록」 「누정록」 「구비문학 자료」 등 향토자료집 발행 실적이 특히 우수하고 회원관리와 행정업무의 모범 등이 인정되어 앞서가는 문화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강좌」를 통하여 각급학교 학생, 민방위 대원과 기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과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의령실록은 1,000부인데 전 회원, 군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에 우선 배부하고 그외 전국문화원, 공공도서관, 전국 대학교, 문화 학술단체 등에도 배부 된다.



“조선시대
의령은
이랬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우편번호 : 121-715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속의 성과 로맨스

젊은 여인과 승려의 ‘간통’

조선시대 성풍속도를 잘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도장이 눌러있긴 하지만 못 눌린 투나 대상 묘사로 보아 김홍도의 화법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림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승려와 여인이다. 불경 소리가 들려야 할 신성한 사찰에서 무엄하게도 나이가 50은 족히 먹어 보이는 한 늙은 승려가 젊은 미모의 여인과 일을 내고 있다. 이만한 음양의 조화가 봄날의 엿장수처럼 자주 오소나! 눈치하나만 큼은 누구보다 빠른 까까머리 동자승이 창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는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눈동자를 대굴대굴 굴러가며 바라보고 있다.

머리에 고급 장식물을 얹은 것으로 보아 여인은 보통 아낙이 아닌 사대부집 마나님 같아 보이는데 무엇이 그리 아쉬워 험한 산사에 까지 오른 것일까? 이를 두고 입담 센 사람들은 말한다. 대개 여자들이 절을 찾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그만한 사연이 있는 법이라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머니로서 제 자식이 시험에 합격해 입신양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오랫동안 산사에 기거하다 보면 자연히 승려와 마음이 통한다는 것.

조선시대 남성들이 전쟁터를 두려워했다면 여성은 ‘칠거지악’을 무서워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식을 못낳는 것(無子)이었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모멸이자 파멸을 가져오는 ‘형벌’이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여인도 자신을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 ‘칠거지악’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남편과 시부모에게 말미를 얻고 험한 길을 올라 암자를 찾았는지 모른다. 아이를 못낳으면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남편과 첩으로 부터 평생토록 괘시와 홀대를 받을 것이 명약관화한 세상이었다.

특히, 이러한 춘화를 단순히 ‘빨간 그림’으로만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조선시대는 승유억불 정책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교 숭상자들이 불교 신자들의 모순과 비행을 들어가며 불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의 일환으로 삼기위해 가공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행은 작게 스캔들은 크게’ 부각되는 세상사를 고려해 보면 승려와의 간통은 불교 전체의 위도가 아닌 불교계 자체에서도 비판받았던 일부 승려의 외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처럼 빨강계만 보이는 이 한장의 그림은 남녀간 성행위를 묘사한 빨간책이 아니라 유불간 갈등을 묘사한 빨간책일 수 있다. 그 아래 한 양반집 규수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픈 조선시대라는 가시밭길이 깔려져 있다.



동태산업단지



ISO9001
인증획득



국산신기술
인증



우수품질인증



신기술인증



원자력안전
마크 획득

고객감동 기술개발 - 삼창



삼창의 신기술이 지구촌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삼창기업.
삼창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등대가 되어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밝혀갑니다.



三昌企業株式會社

680-01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8-9(TEL.052-226-3000)
www.samchang.com